

“총선, 종북세력에 자유 대한민국 추락하느냐 갈림길”

한국교연 송태섭 대표회장, 4·10 선거 특별담화문 발표
지난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등 심판해야
미군 철수 등 주장 세력에 특히 경각심을
성도들, 복음 관점에서 반드시 투표하길



한국교회연합(한국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사진)가 '4·10 국회 의원 선거 특별담화문'을 최근 발표했다. 송 대표회장은 "4·10 총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현재와 미래가 달린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투표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총선에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이 진보세력과 합세해 한국교회와 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야

기하는 무수한 악법을 발의하고 힘으로 통과시킨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대표적인 악법이 '갑염병 예방법'이다. 코로나19 등의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으나 한국교회는 이 법에 의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까지 강제 당했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도 교회에서 예배드렸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폐쇄하고 목회자를 처벌했으니 '교회 폐쇄법'이나 다름없다. 이런 악법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폐기되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 북한 동포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자유도 속박당한 채 김정은 공산 독재체제에서 노예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이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의 소식을 알리고 성경과 달리를 풍선에 실어 보내는 보편적 인류애마저 수를 앞세운 다수당이 '전단지금지법'을 만들어 가로막았다"며 "다행히 헌재 판사의 위헌 심판으로 효력이 정지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이런 졸속 악법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최악의 입법 시도를 폈으려면 단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가 첫 번째일 것"이라며 "이 법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 윤리와 가치를 무너뜨리고 젠더 이념과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안으로 다수의 인권을 억압해 성 소수자를 보호하는 '역차별법'이라고 했다. 송 대표회장은 "성경에서 동성애는 용납할 수 없는 가증한 죄악이다. 한국교회는 이 법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힘으로 몰리는 수모를 겪었다"며 "지난

4년간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선교와 복음 확장에 쏟아야 할 영적 에너지를 거둬두고 국회 앞에서 쏟아야만 했다"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만 제 막을 내리게 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진 정당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 더 강한 입법 시도가 있게 될 수도 있다"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점을 가슴 깊이 인식하고 반드시 투표장에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4·10 총선에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특별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며 "바로 과거 통정당 세력이 거대 야당이 진보세력과 합작해 만든 비례당과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라고 했다. 송 대표회장은 "만약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며 국가전복을 꾀해 온 종북좌파 세력이 22대 국회에 들어간다면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의 손아귀에 들어가

는 것이며, 사회 혼란과 갈등이 극심해질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세력이 국회의 건전한 입법 활동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을 선택할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21대 국회에 들어간 많은 기독교인 의원이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당리당락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을 보았다. 22대 국회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에 참석해 얼굴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다고 무조건 표를 주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회장은 "벌써부터 이번 총선에서 특정 정당이 반정부 세력을 모두 규합해 200석을 확보한 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중대한 법 위반 등의 사유 없이 다수당이 가진 힘으로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눈과 입을 막고 나라를 분열과 갈등에 빠뜨려 정권을 집탈하려는 저열한 정치 선동이다. 이

런 선동에 휘둘러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 "마음에 와닿는 후보가 없다고 투표장에 가는 걸 포기하면 안 된다. 내가 포기하는 순간 그 틈을 악한 세력이 파고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며 "지지고 싶은 후보가 없을 때는 기권하지 말고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과 방향이 기독교 복음의 관점과 가치관에 어느 정도 가까운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란다"고 했다. 송 대표회장은 "이번 총선은 자유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회 혼란을 꾀하는 종북좌파 세력에 휘둘러 비참하게 추락하느냐 갈림길에 선 중대한 선거"라며 "최선이 아닌 것이라도 선택해야 나라가 바로 서고, 사회가 안정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 유권자로서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4·10 총선은 체제 전쟁 분깃점,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나사연, 전기총연 등과 2일 시국성명 발표
선거 결과 따라 대한민국 미래 두 갈래
글로벌 리더 되나 北 같은 나라 되느냐
후회 없는 신성한 주권의 한 표 행사를

“자유민주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여러분! 7백만 기독인 여러분!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WEA 토마스 슈마허
사무총장 사임 >> 3면

최승목 '성경으로 풀
어가는 기독교 교리' >> 7면

이준원 목사 "찬양으로
승리를 선포하라" >> 22면

오는 10일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앞두고 기독교 단체들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호소를 담은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이 기자회견은 나라사랑전국기독인연합(대표회장 이상민 목사, 이하 나사연)이 주최했고, (사)전국기독교17개광역시도 226개시군구총연합회(전기총연), 한국보수시민단체 및 전국기독교총연합, (사)미래약속포럼, 대한기독교노인회도 함께했다. 나사연은 지난달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차 시국성명을 발표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총칼 없는 내전 상태나 다를 바 없는 지경"이라며 "오늘의 이와 같은 상황은 4·10 총선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일컫는 선거를 야가 서로 죽기 살기로 치르고 있기에 더욱 거세지

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까막힌 것은 감옥에서 석고대죄해야 할 파렴치범들조차 당을 만들어 국민을 현혹시킴으로 온 국민들은 연일 우왕좌왕 격렬한 '체제 전쟁 속으로' 휘말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문제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어느 정당의 승리와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돌아올 수 없는 두 갈래의 길이 놓이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그중 하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세워지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평화롭고 복된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그리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서게 될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생지육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낮은 연방제 통일 즉 북한식 사회주의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섰던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의 협박과 압력 무릎 꿇고 지지해 준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국가 정체를 방법으로 또는 안하무인 우격다짐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기관, 집단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언론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부, 교육계, 노동계, 인권위, 문화계, 심지어 종교계까지)의 동지예다 공산·사회주의, 전체주의의 뼈기 타탄을 옮겨 놓았던 것"이라며 "이러한 타탄들이 부화되어 괴력을 과시하면서 평화로운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체제를 파괴하면서 민낯을 드러내고 총력으로 체제 전쟁을 하고 있다. 이 전쟁의 분깃점은 4.10 총선, 즉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총칼 없는 이 비극적인 체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두커니 아담답고 복된 이 나라가 공산·사회주의, 1인 독재의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함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던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진정으로 자유민주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과 5천만 국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참된 애국자인지 철저히 파악하여 거짓과 후회 없는 신성한 주권의 한 표를 행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의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 △종북주의파, 통정당의 잔재, 소위 386 및 한총련 관련자, 송중(宋中) 친라(親 러시아)에 속한 자들 △전과자와



총선을 앞두고 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독교 단체들이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주최 측 제공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 각종 범죄 혐의자들 △국회의원직과 국회를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방탄조끼로 삼으려는 자들 △과거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면서 각종 악법을 주도적으로 제정하는 자들을 국회로 보낼 수 없다고 천명했다. 반면 "여야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민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순결한 애국자들을 국회로 보낸

다"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전국 교회의 3만여 명의 목회자들에게 호소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의 메신저들이"라며 "부디 오늘의 국가적, 교회적 위기를 직시하시고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처럼 강단에서 외쳐 달라.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두려워하시고 시대적 사명을 담대히 감당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김진영 기자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총 809세대 · 대단지 블록형 단독주택

| 기본주택 개관중 | 031)858-9800
(건본주택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1-4)

브랜드부터 스케일까지 더 높게, 더 크게

학교도 마트도 산책하듯 여유롭게

- 양주 옥정신도시에서 처음 만나는 힐스테이트
- 수도권 최대 규모, 총 809세대 블록형 단독주택 대단지
- 다바위공원, 선돌근린공원 등 단지를 둘러싼 풍부한 녹지
- 초·중·고교 및 CGV, 이마트 등 중심상권 인접

아파트에서 못 다 이룬 공간의 로망을 현실로

- 아파트에선 가질 수 없는 중정, 정원, 다락 등 여유공간 전 세대 제공
- 대단지 아파트 수준의 규모 있는 커뮤니티 및 고품격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 서울과 멀어지지 않고 어디든 가깝게, 빠르게
-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GTX-C 역점역(예정)
- 강남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7호선 옥정역(예정), 옥정중앙역(예정)

계약금 5% 대출지원(무이자) | 중도금 안심 확정금리(4.5%) | 전매가능 | 현대건설 책임준공

※ 상기 이미지는 스테이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상세사항은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재된 커널/니트 시공은 양주 한-에이 과정에서 일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개발계획은 관련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대당시, 시공사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에클레시아’, 구원의 은혜·하늘 시민권의 축복 모두 포함한 이름”

이충재·김진미 박사, 한국복음주의신약학회 제79차 정기논문발표회서 발제

한국복음주의신약학회(회장 김현광)가 최근 충현교회(담임 한규삼 목사)에서 제 79차 정기논문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충재 박사(백석대)가 ‘교회, 택함 받은 자들의 공동체, 마태복음 내려티브 속에서 찾아보는 교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김지은 박사(헷볼트나티비신대)가 논평했다. 이어 ▲김진미 박사(아신대)가 ‘히 4:12-13의 ὁ λόγος와 전쟁-안식-제의의 모티프라는 주제로 자유발표를 하고, 조재형 박사(강서대)가 논평했다.

◆교회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두 가지 측면

이충재 박사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며 “수많은 연구자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보았던 곳은 어디일까? 아마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돌아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처음 세우는 곳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장면의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보면 먼저, 한글 성경이 ‘교회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의 의미’라며 “대부분 이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를 어떤 특별한 성격 없는 모임, 회중, 공동체를 나타내는 단어로 설명한다. 하지만 과연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면서 특별한 성격 혹은 함의 없는 이름을 붙여

불렀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왜냐하면 비교적 최근의 중요한 성경 헬라어 사전들은 에클레시아의 공식적 의미와 어원적 의미를 연구하여 그것의 특별한 성격 혹은 함의를 찾아내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불어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택함 받아 특별한 권세를 누리는 회중’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제시한다”며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는 에클레시아가 이 사전들의 연구와 일맥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주권적 은혜로 택함 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특별한 시민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이 박사는 “둘째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의 문맥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를 세운다”며 “하지만, 그 이전에 아무런 준비나 일련의 과정 없이 갑자기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공생애 사역을 시작한다”고 했다.

이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르러서 지난 공생애 사역을 통해 부른 제자들을 교회로 세운다. 즉,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에클레시아를 세우기 시작하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드디어 교회 세운다”며 “이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의 넓은 문맥을 살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넓은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세우는 에클레시아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그 옳은 뜻 가운데 택한 자들에게 계시를 주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고 그 부름대로 돌아가 자신을 따르는 제자를 삼아 그들을 중심으로 세우는 것임을 설명한다”며 “그리고 이 넓은 문맥이 담고 있는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앞서 언급한 헬라어 에클레시아의 공식적 어원적 의미와 일치한다는 것을 제시한다”고 했다.

더불어 “헬라어 에클레시아의 공식적 어원적 의미와 예수님이 에클레시아를 세우는 마태복음의 문맥 연구를 통해 교회가 가까이 왔으니 돌아가 전파하며 권세를 베풀고 택한 자들에게 계시를 주어 자신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여 돌아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사역을 펼치셨다”고 했다.

◆에클레시아, ‘택함 받아 특별한 권세를 누리는 회중’ 의미

그는 “여러 헬라어 사전들이 보여주듯이 에클레시아에 대한 공식적이고 어원적



한국복음주의신약학회 제79차 정기논문발표회 기념 사진. ©한국복음주의신약학회

인 연구는 그것이 단순한 ‘회중’이라는 의미를 넘어 ‘택함 받아 특별한 권세를 누리는 회중을 가리킨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27절과 16장 15절-18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에클레시아로 세워지는 제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특별한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그 모든 의미를 담아 제자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로 불러 세운다”고 했다.

이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공생애 사역의 넓은 문맥은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와 일치한다”며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돌아가 전파하며 권세를 베풀고 택한 자들에게 계시를 주어 자신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여 돌아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사역을 펼치셨다”고 했다.

또한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의 내용은 하늘나라의 도래에 따른 돌아옴의 말씀 전파(마 4:17-8:1), 돌아옴을 위한 권세를 행함(마 8-9장), 패역한 자들에게 자신을 숨기고 택한 자들에게는 한정으로 계시를 주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알게 하고 돌아가게자 삼음(마 11-12장), 계시를 얻어 돌아온 제자들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시민권을 베푸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마 14-16장)”고 했다.

이 박사는 “예수님은 자신의 이 모든 사역의 내용을 ‘택함 받아 특별한 권세를 소유하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에클레시아에 담았다’며 “예수님은 세상 모든 인간이 범죄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심판으로 받아 들고 그들의 능력으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권

자로서 택한 자를 불러 계시를 주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돌아가고 죄를 사하여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였다고 밝힌다”고 했다.

아울러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번역하는 교회는 이 놀라운 선택과 계시와 돌아옴을 통한 구원의 은혜와 하늘나라 시민권의 축복을 모두 담고 있는 이름”이라고 했다.

이에 논평을 한 김지은 박사는 “저자의 방법론은 에클레시아의 객관적 의미만을 고찰하고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둘러싸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망해간다는 점에서 새로운 느낌을 주면서도 설득력을 잃지 않는다”며 “에클레시아라는 렌즈를 가지고 마태복음 본문을 들여다보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본문이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데, 이 과정이 역지스럽거나 부자연스럽지 않다. 오히려 저자의 논지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이끌어 간다”고 했다.

김 박사는 “에클레시아가 가진 원래의 선택이란 뜻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택함이라는 맥락에서 극대화되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확실하게 해주었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면 좀 더 명확한 공식적 어원적 의미의 연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고 했다.

◆히 4:12-13의 ὁ λόγος와 전쟁-안식-제의 모티프에 대한 고찰

이어서 마지막 두 번째로 발제한 김진미 박사는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 문헌이 보여주는 일련의 패턴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히 4:12-13의 ὁ λόγος에 함의된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며 “히 4:12-13의 두 개의 λόγους를 아들 예수의 활동동

로 해석할 때 저자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히 3:7-11)는 권면에 이어 살아 있고(Zωή)라는 인격적인 말씀으로의 새로운 여호수아에 대한 묘사는 히브리서 전체의 논리와 가장 조화롭게 연결된다”고 했다.

김 박사는 “히 4:12-13은 단순한 심판의 문맥이 아니다. 4장에 이어지는 대제사장(히 4:14-5:10)에 관한 논의는 별도의 구분 단락도 아니”라며 “예수의 전쟁 이미지(히 4:12-13) 이후 대제사장으로서의 등극(히 4:14-15)과 함께 속죄 제의(히 5:1-10)에 관한 서술로 이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전쟁(등극)-안식-제의’라는 선형하는 전통 가운데서 묘사되고 있음을 발견한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여호수아의 전투(히 4:12-13)는 현재의 악한 세대를 지배하는 세력인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열거한다”며 “이러한 읽기는 4장에서 λόγους의 전쟁 활동의 효력에 이어 수신자들의 더디 깨닫는 현재적 상황에 따른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5:11-6:8과의 연결성을 보다 분명하게 해준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제의적 모티프가 최용서와 관련된 뿐만 아니라 대제에 대한 승리로써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은 하나의 이야기임을 다시 확인한다”며 “두 개념이 각각 독립된 모티프로서 기독교적, 구원론적인 함의를 갖는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구약과 제2성전기 문헌에서 두 개의 모티프는 서로 연결된 하나의 패턴으로 해석되는 전통을 발견한다. 이것은 히브리서에 나타난 속죄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논평한 조재형 박사는 “히브리서의 예수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기존 교계의 이해를 전쟁-안식-제의 주제로 확장해서, 히브리서 4:12-13의 로고스가 성육신한 이후 예수의 활동이라는 참신한 해석을 제시한다”고 했다.

조 박사는 “히브리서의 독자와 저자의 정황을 조금이라도 설명한다면 4:12-13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거꾸로 이 논문에서의 논의를 통해 저자와 공동체와 기록연대에 관한 새로운 실마리를 제시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장지동 기자

“이단 광고 내주는 언론사들, 즉각 중단해야”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통해 촉구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지난해부터 은혜교회 신육주 측으로부터 한국 주요 일간지에 기독교를 부정하는 전면 광고가 나가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최근 발표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이들이 낸 광고는 ‘변론 시리즈’와 ‘변호 시리즈’ 그리고 ‘판결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며 “‘변론’ 부분에서는 자신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들에 대하여 성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자신들의 교주를 구속한 것에 대하여 ‘종교재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리고 ‘변호’ 부분에 들어가서는 신육주와 성도에 대한 송사를 변호

한다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내용들을 게재하고 있다”며 “그 내용들은 황당하다 못해, 그들이 이단자임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교주인 신육주는 지난 2020년 2월에 공동 상해, 특수 폭행, 특수 감금,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오는 2025년 7월까지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런 이단의 광고를 끊임없이 지면을 통해 내주고 있는 주요 언론사들”이라며 “이들이 낸 광고는 변론이 9회, 변호가 34회, 판결이 현재까지 26회에 이르는데, 이를 각 언론들이 광고로 이단 선력을 홍보해 준 것이다. 이들의 광고는 모두 전면 컬러로 상당한 금액이 들

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들이 이런 광고를 내고 얻으려는 것은 언론의 지명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불리함을 모면하려는 것”이라며 “지난 2020년 은혜교회 측이 유엔 인권이사회 조사에 낸 답변서에는 ‘우리가 정말 이단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진리’의 선포가 한국의 여러 언론 매체에 게재될 수가 있겠는가? 한국 내 기독교신 6곳과 주류 일간지 3곳에 전면 광고가 실리고 있다고 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부정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반종교적, 반사회적 교주와 그 이단의 주장을 실어주는 언론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서울광장 못 쓰는 쿼어퍼레이드, 어디서 열리나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오는 6월 1일 서울 시내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측은 지난달 31일 홈페이지의 ‘제25회 서울퀴어퍼레이드(SQP) 경력지원활동가 모집’ 공지에서 이 같은 퍼레이드 개요를 알렸다. 이들은 “올해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추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쿼어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5월 31일과 6월 1일에 서울광장을 사용하고 싶다고 서울시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페레이드는 6월 1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 날짜에 사용 신고를 한 단체가 두 곳 더 있었다. 결국 세 개 단체 측이 지난달 21일 서울광장 사용에 대해 협의했으나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쿼어축제 측의 서울광장 사

용 여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열린광장정운영시민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시민위는 이미 다른 행사로 열기로 확정된 6월 1일을 제외하고 5월 31일 사용 여부에 대해서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쿼어축제의 메인행사라 할 수 있는 서울퀴어퍼레이드는 올해 서울광장에서 열릴 수 없게 됐다. 김진영 기자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짝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펜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운 피부 나이

10.6% 볼 탄력 개선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12.2% 피부 탄력증 개선

RETINOL SUPER BOUNCE SERUM

RETINOL 4X

IOPE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펜' 채널 문의처 | 전국 대리점 및 올리브영 매장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3, 아이오펜 (주) | 2023.01.25-2023.03.31 (사)한국화장품협회 인증 (사)한국화장품협회 연구개발

세계복음주의연맹 토마스 슈마허 사무총장 사임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사무총장 토마스 슈마허(Thomas Schirmacher) 주교가 지난달 31일자(이하 현지 시간)로 WEA 국제이사회(International Council)에 사임을 통보했다고 WEA가 홈페이지를 통해 1일 밝혔다. 국제이사회는 슈마허 주교의 사임을 만장일치로 수용했다. WEA에 따르면 슈마허 주교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사임은 이에 따른 것이다. WEA는 “슈마허 주교는 WEA와 그 회원국 및 위원회와 오랫동안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밝히고, “WEA 국제이사회는 WEA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님

의 인도하심, 자혜와 은혜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독일 출신이며 성공회 주교(Anglican archbishop coadjutor)인 그는 지난 2021년 초, 전임 에프라임 텐데로(Efraim Tendero) 주교에 이어 WEA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슈마허 주교의 임기는 당초 2026년 2월 28일까지였지만, 이번 사임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 텐데로 주교 이전에는 제프 터니클리프(Geoff Tunnicliffe) 목사와 존 벤서(Jun Vencer) 목사가 각각 두 번의 임기를 역임했다. WEA 국제이사회는 공석이 된 사무총장 자리를 대신해 굿윌 사나(Goodwill



WEA 사무총장직에서 사임한 토마스 슈마허 주교. ©Martin Warnecke

Shana) 국제이사회 의장을 집행위원장(executive chair)으로 세워 최대 6개월간 임시로 사무총장 직을 겸직하게 했다.

이 기간 굿윌 사나 의장은 현재 일하고 있는 페이롱 린(Peirong Lin)과 사무엘 쟁(Samuel Chiang) 등 2명의 사무차장이 있는 사무총장실(Office Of The Secretary General)을 감독한다. 사무차장 직은 텐데로 전 사무총장의 임기 중 신설됐고, 슈마허 사무총장 임기 중에도 이어져 왔다. 또 WEA 국제이사회 인사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사무총장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차기 사무총장 및 CEO 인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WEA 사무총장 직은 WEA의 국제이사회에 의해 임명되며,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이 가능하다. 김진영 기자



WEA 사무총장 직을 사임한 토마스 슈마허 주교(왼쪽 두번째)와 전 사무총장인 에프라임 텐데로 주교(왼쪽 세번째)가 바티칸을 방문해 교황을 만난 모습. ©media.protestantedigital.com

거룩한방파제, ‘차별금지법 반대’ 4차 국토순례 완주

차별금지법 반대의 뜻을 알리기 위해 국토순례를 이어온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거룩한방파제가) 4차 국토순례를 완주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진행된 완주식은 최영학 목사(거룩한방파제 국토순례위원장)가 사회를 맡았고, 박명용 장로(한국성서화운

동협의회 대외특별위원장)의 기도와 이종승 목사(한국성서화운동협의회 상임고문), 이경은 목사(경남성서화운동본부 대표부부장), 주요섭 목사(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가 축사와 격려사를 전달했다. 거룩한방파제는 이날 경남 거제 신촌

예술터에서 완주식을 개최하고 517km의 남해지역 순례를 마쳤음을 알렸다. 4차 국토순례는 28박 29일의 일정으로 진행됐고, 지난 3월 4일 전남 진도에서 출발, 해남-강진-장흥-보성-고흥-별교-순천-여수-광양-하동-남해-사천-고성-통영을 거쳐 거제에서 끝을 맺었다. 거룩한방파제의 국토 순례는 지난해부터 여러 코스로 진행되고 있다. 2023년 1-3차에 걸쳐 국토를 세로로 종단했고, 올해는 4차 순례를 마무리한 이후 7월에 휴전선 155마일을 중심으로 5차 순례를 진행할 계획이다.

거룩한방파제의 국토순례단장인 홍호수 사무총장은 “여러 차례의 순례를 진행하는 데는 우리나라를 종과 횡으로 연결해 전국 226개 시군구에 ‘거룩한방파제’를 세우는데 의미가 있다”며 “또 상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국토순례를 통해서 다음세대와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포괄적차별금지법 등의 해악성을 지역

사회와 교계에 알리고, 여론의 각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순례의 진정한 목표”라고 했다. 이어 “동성애퀴어축제에 반대하는 거룩한방파제의 통합국민대회가 6월 1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개최되고, 이를 준비하는 연합금요철야 기도회가 4월 5일 오산리최자실 기도원에서 있다”며 “국토순례의 뜻을 모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완주식에 참석한 이종승 목사(한국성서화운동협의회 상임고문)는 축사를 통해 “완주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한 것이다. 시작도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 믿는다. 믿음과 노력과 기도와 정성과 눈물과 피와 땀이 반드시 열매 맺고 대한민국을 살릴 줄 믿는다”고 했다. 연이은 축사에서 이경은 목사(경남성서화운동본부 대표회장)는 “우리는 악인이 많아서 세상이 무너진다 생각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세상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의인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한다

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와 같은 사명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것”이라고 했다. 격려사를 전한 주요섭 목사(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는 “아직도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지적하며 “거룩한방파제 국토순례가 전국 곳곳에 이러한 내용들을 바로 알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깨우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차별금지법 반대의 뜻을 알리기 위해 국토순례를 이어온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거룩한방파제)가 4차 국토순례를 완주했다. ©거룩한방파제

“성전환수술 증명서 없는 성별 정정 반대”

한반교연·악대본 등 기자회견 열고 성명 발표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대표 한익상, 이하 한반교연), 17개광역시도약법대응본부(악대본) 등 단체들이 2일 오전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성전환수술 증명서 없이 성별 정정을 판결하려는 대법원의 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대법원이 성별 정정 신청자에게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심히 경악하며 이를 규탄한다”며 “남성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생식력을 유지한 사람을 여성으로 인정해 주면, 이로 인하여 발생할 다수 여성의 인격권 침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해의 사례를 보더라도, 여성 목욕탕, 여성 탈의실, 여성 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남성의 성기를 가진 성전환자가 여성을 성폭행한 사례도 있고, 여성으로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남성과 생물학적인 남성 사이에 성관계를 통해 임신한 사례도 있다.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후 여성 운동 선수로 경기에 참가해서 다른 여성 선수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무분별한 성별 정정은 남성들에게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우리는 사회를 혼란하게 하며, 심각한 범죄를 유발하는 성별 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확인서 폐지 검토를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날 17개광역시도약법대응본부 사무총장 최광희 목사가 단체를 대표해 발언을 했다. 악대본은 “대법원은 대한민국



한반교연·악대본 등이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최 측 제공

사법부의 최고 결정 기관이며 마지막 보루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은 물론이고 인륜과 양심에 비추어 터질 만큼의 손색도 없는 결정과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대법원행정처가 모든 법률에 어긋나며 양심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 방침을 발표해서 온 국민의 격정하고 원성이 자자한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대협 법원행정처장의 귀에는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방국적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가 성전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남자 몸을 가진 채 법적 여성이 되어, 여성 전용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닐까 여자들 때문에 다수의 진짜 여성이 당할 수지와 인격 침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일부 해외 국가 가운데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을 정정해주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가는 해외로부터 나쁜 질병이나 악한 풍습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기 위해 막는 것이 의무”라며 “그런 노력에서 발생하는 통제와 불편도 지금껏 국민이 당연히 여기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

런데 세균과 바이러스보다 훨씬 폐해가 큰 악한 제도를 고의로 도입하겠다는 게 법관이 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성전환수술 증명서도 없이 성별 정정을 해 주는 방침은 모든 여성을 공포의 나라에 살게 만드는 악행”이라며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또 모든 남성에게는 어머니와 누이, 아내와 딸이 있다. 그러므로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자에게 성별 정정을 해 주는 것은 전 국민을 향한 테러행위를 반드시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대법원행정처가 할 일은 성별 정정 재판에서 참고사황인 수술 확인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수사항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만일 폐지 방안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한국교회의 71개 교단과 대한민국 17개 광역시도의 기독교총연합회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끝으로 “성전환수술 증명서 없는 성별 정정 판결 결사 반대한다”며 “대법원은 성전환수술 증명서를 필수사항으로 전환하라”고 역설했다. 장지동 기자

사람을 연결하고
시간을 연결하고
공간을 연결하는

지금 이 순간도 LX는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차용 에너지 LX인터내셔널 | 글로벌 스마트 물류 LX판토스 |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LX하우스 | 신소재개발 LX MMA | 차세대 반도체 LX세미콘 | 유리솔루션 LX글라스

LX
LINK FOR NEXT

“부활하신 예수께서 현재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야”

남가주교협 주관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

2024년 남가주교계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가 31일 오전 5시 30분에 총현선교회(담임 국윤권 목사)에서 남가주교회(회장 최영봉 목사) 주관으로 성대히 열렸다.



예배는 최영봉 목사의 사회로, 기도 최학량 목사(증경회장), 성경봉독 심진구 목사(부회장), 찬양 총현선교회 성가대, 설교 민중기 목사(KCMUSA 이사장·사신), 봉헌 기도 권영신 장로(부회장), 특송 조준석 목사(음악부장), 특별기도 인도 샘 신 목사(수석부회장), 축하연주 정완기 목사(증경회장), 축하인사 인도 정요한 목사(부회장), 광고 최영하 목사(총무), 축도 한기형 목사(증경회장)순으로 진행됐다. 민중기 목사는 마태복음 28:1-10절을

본문으로, “예수께서 살아나셨나니!”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에 5번 나타나셨는데 계속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일까.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신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녀의 마음이 가장 아팠을 것이고, 가장 암흑의 순간에 예수님에게 그녀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를 알려라고 격려했다”라며, “지금 세상에 많은 환란과 기근, 전염병이 있어서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 믿음의 해체 수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지금 이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기를 바란다”

민 목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



2024년 남가주교계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가 31일 총현선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주요 인사들이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들을 회복시켰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번이나 물으셨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의 리더십을 회복시키셨다. 갈릴리 산에 가서 10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

시고 그들을 세우셨다’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을 믿기를 바란다.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다시 주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이다.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다시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 선배 목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경험을 했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활의 메시지를 제대로 못전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말씀이시냐고 하면서 과거에도 역사적인 예수의 부활을 전했고, 미래의 내 몸의 부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전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를 ‘부활은 현재의 부활이다. 역사적으로나 미래에도 부활하지만 현재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영광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나셨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1)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가 “미국과 한인교회와 이민 사회를 위하여”, 2) 이현욱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가 “남북한 평화와 북을 통일을 위하여”, 3) 국윤권 목사(총현선교회)가 “남가주와 세계 교계 부흥을 위하여”, 4) 정 캐더린 목사(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수석부회장)가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위하여”, 5) 강순영 목사(서명운동실행위원장)가 “캘리포니아 약법제지 서명운동의 성공을 위하여” 기도했다. 기도 후에는 송정명 목사(성시화운동공동대표), 김영완 총영사(LA 영사관), 제임스 안 회장(LA 한인회), 정해진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 대표), 이정현 목사(한기총미주총회장)가 부활절 인사를 전했다. 이 날의 헌금 전액은 독거노인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토마스 맹 기자

“활화산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OC에 분명히 불어 올 것”

2024 OC교계 부활절 연합예배 개최

3월 31일(주일) 부활절을 맞아 OC교계가 연합예배를 새벽 5시 30분에 나침반교회에서 “다시 살아나라!”는 주제로 드렸다.



2024 OC교계 부활절 연합예배를 마친 후 기념촬영. ©주최 측 제공

이창남 목사(OC교협 부회장, 주님의 손길교회의 인도)로 시작된 부활절 연합예배는 나침반교회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 환경영 목사(OC교협 이사장, 나침반교회)환영사, 배기호 장로(OC장로협의회 회장) 대표기도, 은혜한인교회 중창단의 특별찬양 “살아계신 주, 유우경 권사(OC 기독교전도회연합회 증경이사장) 성경봉독에 이어 권혁빈 목사(씨드교회)의 설교로 진행됐다.

권혁빈 목사는 “죽음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죽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은 죽음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면 그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시간이 끝나고 다른 시간의 세계 다른 우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삶이 끝나면 그렇게 새로운 차원의 시간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설교를 시작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던 실패자들이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과 소명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헌신하는 사도가 되었다”며 돌이킬 수 없는 절망과 실패, 좌절도,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서 반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삶에도 실패가 참 많다. 자녀교육을 실패할 수도 있고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에도 실패하고 내 삶에 구석 구석에 실패의 위협들이 많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도시는 그것이 끝이 아님을 보여준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슬픔과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다. 교통사고도 나고 암에 걸려 죽기도 한다. 우리는 그 앞에 절망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시고 결국 그것을 회복하시고

바꾸신다.” 이어서, “활화산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OC에 분명히 불 거라고 믿는다. 그 불빛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 같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불꽃을 일으킬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믿는다”며 OC에 새로운 부흥의 불씨가 불게 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그는 “배가 폭풍을 만났을 때 선원들은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장의 얼굴을 본다. 수십년 동안이 모든 상황을 이겨온 선장의 얼굴을 보면 이 싸움이 싸울 만한 싸움인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한다.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분은 이미 승리하시고, 모든 절망을 뒤집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지닌

분이다”라며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권 목사는 “한국행 비행기를 가면 비행기 안에서부터 한국적인 것이 느껴진다.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 삶에 스며들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부활의 영성,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라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절망과 우리의 모든 죽음을 되돌릴 수 있다. 그 승리의 전율이 우리 삶을 떠나지 않기를 축원한다”고 설교를 마쳤다.

설교에 이서 한기홍 목사, 조봉남 회장(OC한인회), 심상은 목사(OC교협 회장, 갈보리 선교교회)의 부활절 특별 축사를 전했다. 한기홍 목사는 “캘리포니아 아동보호법 서명을 현재까지 40만이 조금 넘게 받았다. 13일까지 합쳐서 55만 명의 서명이 이루어지면, 11월에 선한 법이 세울 수 있다”고 했다.

레위성가단의 헌금특송과 김생수 장로(OC교협 후원이사, 장로협의회 증경회장)의 헌금기도, 조진용 목사(OC교협 총무, 바인교회)의 광고, 박용덕 목사(OC교협 증경회장, 남가주빛내리교회)의 축도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마무리했다. 식사기도는 이원석 목사(OC목사회 회장, 하시라교회)가 했다.

2024년도 부활절 연합 예배에 이어, 오렌지카운티 교계는 다양한 행사로 연합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디 한 기자

아르헨티나 전 의원, 한국 김치·저탄소 식생활 글로벌 홍보대사 위촉

해의 최초로 국가 차원의 ‘김치의 날’ 제정을 이끈 아르헨티나 막달레나 솔라리 키타나 전 의원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로부터 ‘글로벌 김치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키타나 전 의원은 2023년 7월 아르헨티나에서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해 제정에 기여했다. 이 법안에는 한국이 김치의 중추국인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지정 내용 등이 담겼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현재까지 미국, 영국, 브라질 등 4개국 16개 지역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돼 한국 김치의 인지도와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다. 작년 한 해 한국산 김치는 97개국에 1억5600만 달러 어치가 수출됐다.

키타나 전 의원은 “앞으로 남미 전역에서 김치와 K-푸드 열풍을 이어가고,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아르헨티나에서 김치의 날 제정을 이끈 공로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남미 시장에 한국 김치와 저탄소 식생활이 전파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키타나 전 의원은 김치 제조 현장과 김장 체험 등 한국 식문화를 둘러볼 예정이다. 이나래 기자



김춘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왼쪽 두 번째)이 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아르헨티나 막달레나 솔라리 키타나(Magdalena Solari Quintana) 전 의원(왼쪽 세 번째)을 ‘글로벌 김치·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한 후 김치 시식 행사를 하고 있다. ©aT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은?

에너지 절약

한국지역난방공사 KOREA DISTRICT HEATING CORP.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

뉴욕지역 한인교회들 “부활의 소망 함께 나누자”

올해 부활절에서 뉴욕지역 한인교회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부활의 능력'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면서 단지 이 부활의 사건을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 능력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적극적인 기독교인이 될 것을 당부했다.

프라미스교회 허연행 목사는 '이것이 내가 믿느냐(요 11:25-26)는 제목의 설교에서 유진 오닐의 '나사로'는 웃었다(Lazarus Laughed)'라는 희극을 소개하면서 "이 희극에서 작가가 강조한 것은 비록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뒤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나사로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이라면서 "나사로의 집에는 늘 웃고 다니는 사람의 집이라는 의미에서 '웃음의 집'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이 웃음의 집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를 찾아서 온 예루살렘 마을이 변화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허 목사는 "우리가 이와 같이 부활의 능력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한다. 작가는 이 작품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는 왜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을 봐도 미국사회를 봐도 이제는 성소수자인 사람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그들이 법까지

도 바꾸고 있다. 지금 대다수가 침묵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들은 움직이고 있다. 이미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부모의 동의 없이 스스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수술까지 안내를 해주는 단계에 이르렀다. 미국의 어느 한 주는 부모의 동의없이 낙태를 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가 반대하면 자녀의 양육권을 빼앗기게 된다"고 말했다.

허 목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정신, 이 신앙을 얼마나 용감하게 표현하고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면서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고 참된 것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과연 이것이 나의 최선인지, 또 내가 드러낼 수 있는 맥시멈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부활의 사건이 다만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저지초대교회 박찬섭 목사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행 13:30)는 제목의 설교에서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긴 설교를 담고 있다"면서 "바울은 이곳에 오기 위해 험한 산길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다. 평균고도 해발 1,100m, 최고봉은 해발 3,300m의 산맥이었고 강도



프라미스연합성가대가 부활절 성가 합창을 하고 있다. ©프라미스교회



프라미스교회 허연행 목사가 부활절 설교를 하고 있다. ©프라미스교회



뉴저지초대교회 박찬섭 목사가 부활주일 설교를 하고 있다. ©뉴저지초대교회



뉴욕수정교회 황영송 목사가 부활주일 설교를 하고 있다. ©뉴욕수정교회

도 많이 출몰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바울이 이같이 선교의 열정에 불타던 이유에 대해 "이 복음이 있기 전에 그는 육체의 연약함이나 관계의 갈등, 험한 산지를 넘는 여정 등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다"

면서 "복음은 있지만 감격이 없는 인생들이 있다. 그런데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삶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이 부활의 생동감 있는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 목사는 "이 구원의 감격, 부활

의 감격을 잊지 않고 회복하기만 한다면 로 설 수도 없었다. 황목사는 "먼저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 처형당하신 예수님의 시신에 어떻게든 향유를 발라드리려 하는 이 애절한 마음과 현실적인 장애물 가운데서 여인들은 걱정을 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약속을 받았다.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목사는 네오나르드 스위트라는 학자가 서부교회를 4MS 즉 선교(Mission)하는 교회, 사역(Ministry)하는 교회, 현상유지(Maintenance)하는 교회, 박물관(Museum)교회로 구분한 것에 대해 "우리는 과연 박물관 크리스천인가 아니면 선교하는 크리스천인가를 이 시간 돌아봐야 한다"면서 "부활한 주님은 갈릴리에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크리스천을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분의 물음에 우리가 분명히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새벽 6시에는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태규 목사) 주최로 플러싱과 후레시데오우, 브롱스, 웨체스터, 스테이튼 아일랜드, 롱아일랜드 등 뉴욕의 총 22개 지역에서 뉴욕교협 회원교회들이 연합해 부활절새벽연합예배를 진행했다.

김대원 기자

한인동산장로교회 부활절예배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도 따라 부활할 것입니다!”

한인동산장로교회(담임 이봉삼 목사)가 31일 부활주일예배를 드리고 예수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날 성도들은 이봉삼 목사의 인도에 따라 설교에 앞서 반갑게 부활절 인사를 서로에게 건넸다.

이 목사는 이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눅 24:1-6)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신비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우리가 복된 자들"이라면서 "사복음서의 시작은 다 달랐지만 마지막은 모두 부활로 종결된다. 오늘날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자들"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부활의 기록에 대해 "누가는 의사였고 당시 의사는 지금의 전문의 개념과 달리 모든 영역의 진료범위를 공부해야 했다"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당시 의사였던 누가의 기록



한인동산장로교회가 부활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교회 측 제공

이다. 그 증인의 기록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목사는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 달라져야 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바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하나님 앞에 다 부활할 것이기에 때문에 그 앞에서 돈이나 명예, 건강의 문제 모두 해결이 된다. 돈이 있어도 없어도 부활한 우

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내 시간이 아무리 바쁘다 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자기의 귀한 것도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목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겁날 것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은



한인동산장로교회 임마누엘찬양대가 찬양하고 있다. ©교회 측 제공

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서 "그렇기에 부활을 믿는 우리는 매일 매일 일이 달라져야 할 줄 믿는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바뀔 수 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달라야 한다. 부활을 믿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자"고 권면했다.

이날 1부 예배는 호산나 찬양대가 부활절 찬양을, 2부 예배에서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죽임 당하신 어린양'을 합창했다. 2부에서는 특순으로 동산 관현악기 팀의 연주도 이어졌다. 예배 후에는 30대 여성들로 구성된 브리스가 선교회가 준비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친교시간을 가졌다. 김대원 기자

나사렛 교회과 기독교 연맹, 부활절 연합 예배 드려

다민족 노숙자 교회인 나사렛 교회와 사단법인 기독교 연맹이 지난 3월 31일(주일) 오전 9시 나사렛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는 차기학 목사가 지휘하는 특별 중창단의 연주가 있었으며 노숙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도 지급됐다. 김민선 기자



부활절 연합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교회 측 제공

굿네이버스

Good Neighbors effect

소외된 이웃을 향한 당신의 관심이 따뜻한 마음을 담은 당신의 손길이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난 33년간 전 세계 좋은 이웃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Good Neighbors Effect 입니다.

굿네이버스와 함께 세상에 좋은 변화 만들기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트럼프의 성경 지지 발언, 기독교계 반응 엇갈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주간 동안 '하나님이 미국에 축복을(God Bless the USA)'이라는 이름의 성경을 지지한 데 대해 기독교계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올린 성명에서 트럼프는 유세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곡 'God Bless the USA'를 부른 가수 리 그린우드(Lee Greenwood)와 함께 이 성경을 홍보했다.

이 성경책은 59.99달러에 구매할 수 있으며, 킵 제임스 버전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미국 헌법, 권리장전, 독립 선언서, 충성의 맹세 및 그린우드가 친필로 쓴 곡 '후련구가'가 포함되어 있다.

전 대통령의 성경 홍보는 진보적 기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샀지만, 사회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저명한 보수단체인 '가족연구협회(Family Research Council)'의 토니 퍼킨스 회장은 CP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누군가를 성경을 읽도록 권장한다면 성경 홍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남침례신학교(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윤리 및 공공신학 교수인 앤드루 T. 위키는 월드 매거진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건국 문서를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시키는 것은 시민 종교의 혼합주의적 표현으로, 이는 미국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더 중요하게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허용해야 할 수준보다 더 멀리 나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성경은 결코 만들어지지 말아야 했다. 그것은 내가 성경 또는 헌법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둘 다를 매우 지지하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결국 종교 시민적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둘을 결합하는 것은 보수정치를 위한 정체성 정치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CNN과 인터뷰한 다수의 진보적 기독교 목회자, 활동가, 신학자들은 트럼프의 성경 홍보가 선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미시시피주 잭슨에 위치한 리폼드 신학교(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제마르 티스베는 "성경에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주 오랜 전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성경이 분노를 일으킨 이유는 독립 선언서, 미국 헌법, 심지어 리 그린우



2024년 3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게시한 영상에서 가족 성경을 선보였다. ©Truth Social 캡처

드의 노랫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것을 성경에 추가하고, 성경에 특정 정치적 문서를 수록해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완전히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랜 진보 인권 운동가인 알 샤프턴 목사는 트럼프를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하며, 이번 성경 홍보가 사실상 "진정으로 믿는 신자들의 얼굴에 짐을 벨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그는 MSNBC의 '모닝 조(Morning Joe)'에 출연해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을 진정으로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모욕적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적 기독교 라디오와 뉴스맥스 사회자인 토드 스타네스는 트럼프의 성경 지지에 대해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 진영을 '우오크복음주의자들(wokevangelicals)'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셜 미디어 엑스(X)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미국 헌법과 독립 선언서에 익숙해질 것을 촉구했다"면서 "무신앙인들과 우오크복음주의자들에게 일어난 반응은 가없고 슬프다"고 썼다.

보수 기독교인이자 밴더빌트 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의 정치학 및 법학 교수였던 케일 M. 스웨인은 스타네스의 논평에 동의했다.

스웨인은 엑스에 "트럼프가 리 그린우드의 미국 성경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누군가가 왜 그토록 분개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건국 문서를 읽는다면 미국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를 한 권으로 묶어두면 우리 국가와 그 토대에 대해 더 쉽게 배울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캠페인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성경으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지 않으며, "도널드 J. 트럼프, 트럼프 조직, CIC 벤처스 LLC 또는 해당 주체나 계열사가 소유, 관리 또는 통제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가수 그린우드도 지난달 29일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즈'와의 인터뷰에서 일련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그린우드는 "나는 이 성경을 출판하는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맺었고, 그(트럼프)도 마찬가지로"라며 "우리는 상관관계가 없다. 그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는 어떤 성경이라도 들고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린우드는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은 것을 언급하며 "이것이 그가 실제로 전 세계와 미국, 모든 시민에게 '나는 여러분을 보호할 것이고, 여러분이 믿는 것과 같은 것을 믿으며, 이 나라가 믿음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고 말한 이전과 별반 다를 것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좌파 진영이라고 해서 그들이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들은 단지 성경 홍보를 통해 신앙을 전파한 것에 대해 나와 도널드 트럼프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가 자신이 쓴 'God Bless the USA' 성경에 서명한 것일 뿐이라며 "그(트럼프)는 좌파 진영의 사람들에게도 이번 주말 교회에 가서 부활절을 기념하길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경 지지 발언은 트럼프가 미국 내의 반기독교적 정서를 그의 올해 대선 캠페인의 주요 타겟 중 하나로 삼는 가운데 발표되었다.

트럼프는 지난 2월,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2024 전국종교방송인대회(National Religious Broadcasters)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기독교인들에게 적대적으로 변했다고 주장하며, 만일 11월에 백악관으로 복귀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는 "이번에 가장 큰 위협은 미국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정말로 이렇게 믿는다. 위협은 내부에 있다.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중국, 러시아를 다룰 수 있다. 똑똑한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 모두를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 사람들은 매우 위험하다. 내 생각에는 많은 경우에 그들은 매우 병든 사람들"이라고 발언했다.

유진 김 기자

UMC 산하 기독교 대학, 168년만에 문 닫는다

미국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UMC)와 연계된 앨라배마주의 한 인문대학이 재정난으로 인해 오는 5월에 문을 닫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버밍엄-서던 대학(Birmingham-Southern College) 이사회는 28일 투표에서 대출 프로그램 이용을 보장하는 주 법안이 실패함에 따라 만장일치로 5월 31일에 학교를 폐교하기로 결정했다.

BSC 이사회 의장인 키스 톰슨(Keith Thompson) 목사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대학, 학생, 교직원, 그리고 동문들에게 비극적인 날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막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우리는 이 결정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참혹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모든 관련된 사람들에게 최대한 원활한 편입학을 보장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BSC 지도부는 이미 다른 기관으로 편입해야 하는 학생들과 이번 여름에 학위 요건을 완료할 계획이었던



연합감리교회(UMC) 산하의 버밍엄-서던 대학. ©버밍엄-서던 대학

학생들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시작했다. 학생들이 봄 방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개별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며 "학기 말까지는 수업, 체육 및 교외 활동 등 정상적인 운영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톰슨은 "이사회 의장이자 자랑스러운 동문으로서, BSC를 다녔던 세 아들의 부모이자 BSC의 전 교직원으로서, 168년 전통의 이 보물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비통함과 분노와 좌절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서 대학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일련의 리더십 변화와 통제할 수 없는 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하

여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대학은 제한되지 않은 운영 자금을 모으는 데 주력했고, 이 자금을 늘리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줄어드는 자금을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했다.

대학은 2000년대 중반에 추진한 여러 자본 프로젝트로 인해 거액의 부채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2009년 금융 시장 붕괴로 약 2500만 달러의 손실을 입는 등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2010년에는 대학이 "연방 학생 재정 지원 예산에서 연간 4900만 달러의 예산에서 약 500만 달러의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BSC는 "250여 명의 직원 중 거의 대부분이 5월 31일까지 해고될 예정이며, 나머지 직원은 여름에 해고될 것"이라며 "이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UMC 산하 교육기관으로서 1856년에 설립된 BSC는 사립 인문대학으로, 34개 주와 9개국에서 온 1200명 이상의 학생

이 등록되어 있었다.

최근 미국 내 소규모 사립 기독교 대학들은 재정난으로 인해 문을 닫거나,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2월, 오하이오주 사우스 유클리드에 위치한 노트르담 대학(Notre Dame College)은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채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못하여 100년 이상 된 학교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달 초 미국성공회(PECUSA) 산하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학인 세인트 오거스틴 대학교(Saint Augustine's University)도 재정 및 인종 문제로 인해 4월 1일부터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작년 여름에는 1882년에 설립된 기독교선교연합(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C&MA) 산하 기관인 뉴욕의 얼라이언스 대학교(Alliance University, 이전 명칭은 나약 칼리지)가 재정난으로 대학 인가를 상실한 뒤 폐교되었다.

유진 김 기자

러시아, 탈레반 테러조직 지위 해제 검토

러시아 정부가 탈레반을 테러조직 명단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외무부는 1일(현지시간) "탈레반의 테러조직 지위 종료 문제를 전문 부처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자미르 카불로프 러시아 외무부 제2아주국 국장은 오는 5월 카잔에서 열

리는 '러시아-이슬람 세계 포럼'에 탈레반 대표단을 초청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탈레반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 쿠데타로 실권을 잡았지만, 대다수 국가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만이 지난 1월 탈레반 정권의 대사 신임장을 받아들이며 사실상 최초로 승인한 상태이다.

이나라 기자

인터폴 "동남아 인신매매 기반 범죄단 연수익 3조달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동남아시아에서 인신매매 범죄를 바탕으로 한 범죄 단들의 연간 범죄 수익 규모가 3조 달러(약 4045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위르겐 스톡 인터폴 사무총장은 28일(현지시간) 일부 국제 범죄단체의 연간 수입이 500억 달러(약 67조원)에 이르며, 매년 2조~3조 달러의 불법자금이 국제 금융시스템을 통해 이동 중이라고 말했다. 동남아 지역에서 시작된 사이버 사기

범죄로 인한 인신매매 피해자 수가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시아 지역에서만 2021년 이후 34개국에서 3500건 이상의 체포 사례가 있었고, 3억 달러가 넘는 불법자금이 압수됐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캄보디아 등지에서 10만 명이상이 범죄 기업의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필리핀에서는 800명 이상이 온라인 사기 센터에서 구출되기도 했다.

이나라 기자

노란우산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복지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명 제24-082(2024.3.11.~2025.2.28)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된바, (예금저축보험) 노란우산은 예금저축보험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 가입자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 제120조에 따라 정액 지급에 필요한 채권보증을 위해 매 결산마다 납부관급을 포함한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한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변증에 대한 성경적 답변은?

최승목 박사 '성경으로 풀어가는 기독교 교리' 펴내



하나님, 구원, 속죄, 삼위일체 등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교리서이자 비기독교인들의 도전적 질문에 성경적 해답을 주는 변증서로 활용할 수 있는 신간이 나왔다.

도록 쉽고 간결하게 썼다. 1부는 성경의 기반 위에서 소개하는 기독교 교리들로, 삼진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 구원, 속죄, 하나님(신론), 독생자, 스올(음부), 동정녀, 은혜, 예성론과 만인 구원론, 하나님의 아들들, 성육신, 죄의 유전, 삼위일체 등을 주제별로 소개하고 있다.

2부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지침이 되는 신앙 원리들로, 영원과 시간, 세례, 예배의 기원과 역사, 주일예배의 성경적 정당성, 지상 최대 명령인 전도,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별, 사탄이 떨어진 별이 된 이유, 하와를 유혹한 뱀의 정체, 성경이 말하는 행복 등을 통찰력 있게 해석해 설명해 준다. 독자들이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3-4가지 질문도 제공하고 있다.



최승목 박사

저자인 최승목 박사는 감리교신학대에서 목회신학을 공부하고 국제신학대학원(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에서 칼빈신학을 토대로 한 실천신학으로 석사학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에서 변증신학 비평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연합신학대학원(Unit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성령론, 성령사역을 통한 성도의 변화를 연구해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드류대에서 UMC 트랙 과정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

최 박사는 한국과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로 매주 개척교회론을 집중 교육하고 있으며, 20년 넘게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의 현지인 신학생을 지도해 왔다. 또 연합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겸임교수로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칼럼니스트로, 미주 중앙일보에 3년 6개월간 매주 종교 칼럼을 연재하고, 여러 방송 매체에 종교 칼럼과 기사 게재, 설교 소개 등을 했다. 저서로는

「성경에서 심리학을 읽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브런치, 「코로나 이후 예배 설교 미래 리포트, 「성막 하나님을 꿈꾸다 등이 있다.

출판사는 “성경으로 풀어가는 기독교 교리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 내용인 창조론, 삼위일체, 기독교,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을 성경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또한 신앙생활에 기독교 교리와 신앙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내러티브를 활용해 가르쳐 준다”고 말했다. 이어 “본서를 통해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견고히 하고, 실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기회가 되며, 비기독교인들의 도전에 변증적인 해답을 제시해 주길 소망한다”며 “이 시대 기독교 교리와 신앙원리를 알아가기 원하는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 크리스천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김요한 신현감리교회 목사는 추천사

에서 “기독교 교리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토대이고 중요한 지식이다. 이 교제는 신학생, 평신도,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책”이라고 말했고, 김경국 임마누엘교회 목사는 “이 책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이 해소 되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게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또 이선복 송의감리교회 목사는 “이 책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말씀의 깊이를 상실한 한국교회 강단에 준 축복이다”고 말했고, 장춘식 라오스 글로벌신학대학원 총장은 “이 책을 통하여 합리적인 신앙과 믿음, 신학과 신앙의 조화를 잘 갖추는 성도들이 양육되길 소망한다”, 김병삼 만나교회 목사는 “신앙의 토대를 다지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한국 기독교, 왕족과 백정 아들이 같이 교수 되는 사회로 변화시켜”

민경배 박사, 서울씨티교회서 ‘한국교회와 세계’ 주제로 말씀 전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이자 민족교회사관의 태두로 불리는 민경배 박사(연세대 명예교수)는 초기 한국 기독교와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근대화와 경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라를 잃은 시기에도 온 세계를 생각하며 전진했다면서 “세계를 등에 걸머지고 약속된 미래를 향해 가는 기독교가 참된 한국교회라 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서울씨티교회(조희서 목사)에서 ‘한국교회와 세계’라는 주제로 주일예배 시간 말씀을 전한 민 박사는 먼저 “2020년 4월, 일본 최고의 신문이며 세계적인 신문인 요미우리 1면에 조희서 목사님과 서울씨티교회의 (드라이브인 예배) 기사가 있는데, 한국 목회자로서 요미우리신문 1면에 난 분은 없다. 또 세계 최고의 언론사인 로이터 통신사에도 조 목사님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영광된 일”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민 박사는 “1885년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왔다고 하지만, 2-3년 전인 1882년 만주에서 장물뱅이들이 스코틀랜드 선교사를 만나 한국어로 성경책을 번역해 누가복음을 냈다”고 말했다. 민 박사는 “그리고 1882년은 우리나라 근대의 창세기로, 한미수호조약이 맺어졌고, 태극기를

만든 해이다. 이후 우리나라 첫 교회가 세워진 황해도 속내는 제 고향으로, 십자가도 있지만, 20-30m 높이 장대를 세워 태극기를 달았다. 태극기를 제일 처음 사랑하고 높이 게양한 곳이 바로 기독교교회”라고 강조했다.

민 박사는 “기독교는 학교, 병원, 교회, 과수원 등 4가지로 세워 우리나라 근대화를 시작했다”며 “미신을 없애고 한국 경제를 살리는 엄청난 일도 했다. 우리나라 사회학을 만든 서울대 이만갑 교수는 1928년 우리나라에 와서 사회 조사를 한 에드워드 베네이스의 조수였는데, 에드워드 베네이스의 조사에서 1890년 한해 우리나라 무당들이 쓴 돈이 1만 2천 달러로, 당시 조정 1년 예산인 4천 달러의 세 배 이상이나 되었다”라고 전했다.

민 박사는 또 한국 기독교는 백정 출신과 왕족 출신이 한 대학의 교수가 되는 시대를 열고, 당시 가장 천대받던 상업 앞세워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민 박사는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세운 대학이 세브란스 의과대학으로, 1907년 졸업생 7명이 나왔는데 한 명이 너무 머리가 좋아서 최초의 대학 교수가 삼았다. 박서양인데, 백정의 아들이었다”라며 “우리는 사회 혁명, 공산 혁명을 할 필요가 없다. 백정을 최초로 대

학교수로 세운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마지막 왕인 순종의 부인, 곧 왕후의 처남인 유약겸도 연희전문대 교수가 되었다. 연세대는 왕족과 백정이 같이 교수가 된 대학”이라며 “제일 높은 왕족도 (원래) 학교에서 못 가르치는데 교수가 되고, 백정도 대학 교수가 되어 이렇게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희망을 선포했던 엄청난 한국교회였다”고 강조했다.

민 박사는 “1917년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세워진 전문학교인 연희전문학교는 수석 학과가 상과로, 연전 상과는 민족의 꿈이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 사회 제도가 사농공상(士農工商)인데 ‘상(商)’을 수석 학과로 만들었다”라며 “한국이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 세계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여, 맨 아래쪽의 사람들을 높여 수석 학과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배 박사는 “일본이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중국과 싸워 이겼고, 세계에서 제일 큰 서양 백인 기독교 국가인 러시아와 싸워 이겼는데, 땅에 떨어진 기독교 위상을 세계로 올린 일이 1907년 평양대부흥이었다”라며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 공화당 대표로 대통령 선거를 하다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평양에 갔는데, 새벽에 교회에 6천 명이 모여 있었다. 그때 평양 인구가 4만 명이었고, 북한이 1월에 일

마나 추운지 모른다. 그것을 보고 필라델피아 프레스, 사카고 트리뷴 등에 이런 글이 나왔다. ‘지금 세계에 두 강대국이 등장한다. 하나는 군사 대국인 일본, 하나는 기독교 대국 한국이었다. 프린스턴대 영문학 교수 헨리 반 다이크는 그때 몰락했던 기독교를 다시 세계 역사 무대에 등장케 한 감동으로 찬송가 기뻐하며 경배하세를 지었다’고 설명했다.

민경배 박사는 “1907년 정미조약으로 고종이 쫓겨났을 때 윤치호가 애국가를 찬송가로 지었고, 바로 그해 우리나라 장로교회 독노회가 조직됐다. 나라를 실질적으로 빼앗겼을 때, 전국적인 기독교 조직을 만든 것”이라며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철도가 열린 것이 1906년으로, 전국적 조직을 교회가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때 집회장에 만국기를 걸어 놔다. 하나님께서 만국의 온 세계를 생각하는 교회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생각을 하고 출발했던 한국교회였다”고 강조했다. 또 “3.1독립운동 때 전국이 불타고 교회가 불타고, 몇 천 명이 죽고 잡혀갔는데, 그때 남궁억이 지은 찬송가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다. 그리고 (찬송가 가사에서) ‘일하라 가자’고 하는 기독교가 지닌 엄청난 힘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30년대 세계경제공황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할 때, 한국교회가 지은 찬송가는 ‘눈을 들어 산을 보니’였다”며



민경배 박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한국교회가 일제 때 지은 찬송가가 40개인데, 5-6개가 아주 어려울 그때 지었다. 여러분이 찬송가를 부를 때 한국교회가 가진 엄청난 힘을 얻어 느끼며 전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 박사는 “1930년대 김교신은 조선 지도를 보면, ‘조선은 아시아 대륙과 전 세계 대륙을 등 뒤에 걸머지고 일어선다고 허리를 펴는 모습’이라고 했다”며 “그때 조선총독부의 연례 보고서에는 ‘지금 조선 총독부 관리와 비견할 만한 유언하고 활동적인 내일이 약속된 집단이 하나 있다. 그것이 한국 기독교인들이다’라며 기독교인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민 박사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그만큼 책임이 크다”

고 주장했다. 민 박사는 “일본 게이오대 오코니 마사오 명예교수는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이 못 가진 글로벌 표준 유전자’를 가졌다고 했다”며 “하나님께서 세계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인하고, 세계를 등에 지고 약속된 미래를 향해 가는 기독교가 참된 한국교회라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조희서 목사는 “식민지 밑에서 정말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만국기를 걸고 세계를 향하여 기도한 것을 듣게 되니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라며 “그때보다 (지금) 천 배, 만 배 더 잘 사는 데 점점 나아질 때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해 주시고 만국과 열방을 향해 나갈 힘을 구하자”고 당부했다. 이지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주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APRI400

미래의 에너지 솔루션
소형모듈원자로 (SMR)

탄소배출 제로
대용량 수소 생산

해안에서 입증된 기술력
원전수출 사업확대

Energy Up, Tomorrow

탄소 배출 없는 청정 에너지로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갑니다

“美 목회자 52%, 부활절이 출석률 가장 높은 주일예배”



미국의 한 교회 목회자가 설교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Facebook/Triumph Church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부활절은 미국의 대다수 교회에서 출석률이 가장 높은 주일예배 중 하나라는 결과가 나왔다.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개신교 목회자의 90%가 부활절을 출석률이 가장 높은 주일 혹은 두번째나 세번째로 출석률이 높은 주일로 꼽았다.

세부적으로, 목회자의 52%는 부활절이 출석률이 가장 높은 주일예배라고 답했다. 30%는 두 번째로 많이 출석했다고 답했으며, 8%는 세 번째로 많이 출석했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목회자 중 81%는 크리스마스가 출석률이 가장 높거나 두번째, 혹은 세번째로 출석률이 높은 주일예배라고 답했으며 51%는 어머니의 날이 그렇다고 답했다.

보고서의 데이터는 2023년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1천4명의 개신교 목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나왔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3.2%포인트다.

보고서에 인용된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 대표 스콧 맥코넬(Scott McConnell)은 “많은 교회들이 팬데믹 이전의 과거보다 높은 출석률을 고

려하고 있지만 시즌 변화가 다시 시작됐다”면서 “가을과 초봄의 일관성 있는 기간과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명절 군중으로 인해 교회 출석은 다시 예측 가능하다”라고 했다.

이 비율은 93%가 부활절이 가장 많이 참석한 예배일 중 하나라고 답한 2011년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84%는 크리스마스, 59%는 어머니날이라고 답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명시적으로 교인들이 친구를 예배에 초대하는 날 중 하나로 순위가 상승해 2011년 14%에서 2023년 20%로 증가했다.

또한 목회자의 18%는 교회가 귀향이

나 기념일을 축하하며 출석률이 높거나 두번째, 혹은 세번째로 많이 참석하는 예배일로 꼽았다.

이달 초 갤럽은 미국인의 30%가 매주 또는 거의 매주 종교 예배에 참석한다고 답했으며, 11%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석한다고 답했다. 25%는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31%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갤럽이 2010년대 초반 미국인의 38%가 매주 또는 거의 매주 교회를 출석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수치와 미국인의 42%가 매주 또는 거의 매주 참석한 2000년대 초반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이명경 기자

부활절 모임 가던 남아공 기독교인들, 버스 사고로 45명 사망

아프리카에서 부활절 모임에 참석하던 기독교인 40여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정치 지도자들이 기도와 애도를 표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T)에 따르면,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보츠와나에서 남아프리카 림포포주 모리아시로 이동하던 버스가 림포포 모코파네 인근 R518 도로를 달리던 중 추락해 45명이 숨졌다”고 했다.

남아프리카 교통부는 최근 성명을 통

해 버스에 46명이 탑승했으며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사가 통제력을 상실해 버스가 다리의 장벽과 충돌하고 넘어지며 땅에 부딪혀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디시웨 치쿱가(Sindisiwe Chikunga) 남아프리카공화국 교통부 장관은 “비극적인 버스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생각과 기도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림포포 교통 및 지역사회 안전부가 발표한 성명은 충돌의 영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유일한 생존자는 8세 소녀라고 밝혔다. 현장에 흩어졌다 버스는 다리에서 50미터(164피트)에 해당 떨어진 후 불이 붙었다.

남아공 현지매체인 더 데일리 북스에 따르면, 승객들이 여행하던 부활절 교회 예배는 가장 큰 기독교 모임이었다. 이 행사는 아프리카 시온기독교교회 본거지

인 시온시티 모리아에서 열렸다. 이 때문에 따르면 “대략적인 계산에 따르면 부활절 순례를 위해 모리아를 찾는 순례자는 300만~5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보츠와나 민주당은 보츠와나 대통령이자 당 지도자인 목위치 EK 마스위시(Mokgweetsi EK Maswisi) 대신 성명을 발표하고 “가슴 아픈 버스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온기독교교회) 신도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남아프리카 경찰청 인터폴 중앙국 사

무실은 버스에 탑승한 모든 승객이 보츠와나 시민이었다고 확인했다.

경찰청도 이날 현재 사망자 46명 중 34명의 시신을 수습했지만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9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사고에서 살아남은 8세 여아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림포포(Limpopo) 총리 스탠 마타바타(Stan Mathabatha)는 성명을 통해 “앞으로 이러한 파괴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책임감 있는 운전 관행을 최

우선으로 삼겠다”면서 “림포포의 길은 비극과 상실의 장소가 아니라 기쁨과 연결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상실과 슬픔을 이겨내고 있는 보츠와나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생자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면서 “이 비극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 그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힘과 위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명경 기자

요르단-이집트 정상회담 “가자와 서안지구 팔 민족 분단 용서못해”

요르단을 방문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대통령과 압둘라2세 요르단 국왕이 1일(현지시간) 수도 암만에서 회담을 갖고 가자와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쫓아내거나 이들을 분단시키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두 정상은 가자지구 라파에서의 (이스라엘의)군사작전을 포함해 어떤 물리적 시도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경고를 보냈다고 요르단의 하심 왕가 공보실이 발표했다.

이들은 암만에서 정상 회담을 갖고 이 같은 결론을 밝혔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의 모든 적대행위와 공격을 포괄적으로 완전 중지하고, 인도주의적 즉시 정전과 함께 구호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압둘라 2세 요르단국왕은 이집트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휴전을 위해서 그동안 계속해온 노력에 대해 감사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가자지구 지역의 국경 관문을 열고 인도주의적 구호품의 전달을 막는 모든 장애물을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팔레스타인 문제의 정당하고 포괄적인 해법의 실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적 지평을 열어야 하며, 그 방법은 1967년 중동전쟁 이전의 국경에 따라 동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2개국 해법’ 밖에는 없다고 두 정상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차미레 기자

“美, 이스라엘에 F-15 전투기 50기 판매 승인 임박”

미국 정부가 미국산 F-15 전투기 50기를 이스라엘에 판매하는 거래에 조만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1800만달러(약 244억원) 규모의 전투기 판매 승인이 임박했다고 이날 전했다. 이번 거래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이후 미국의 최대 규모 해외 무기 판매에 해당한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이와 별도로 조만간 대량의 정밀 유도 탄환의 이스라엘 판매 승인을 의회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기 판매는 의회 승인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판매 계획에 대한 뜨거운 토론이 정치권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CNN은 전망했다.

미국은 그간 이스라엘을 전폭 지원해 왔는데 가자지구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하고 민간인 희생자가 치솟자 인콰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민주당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미국의 반대에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의 대규모 군사작전을 강행하려하는 것도 이러한 목소리에 힘을 실고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과의 갈등과는 별개로 군사적 지원을 흔들림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워싱턴포스트(WP)도 지난달 29일 미국 정부가 수십억달러 규모의 폭탄 등을 이스라엘에 보내는 지원안을 조용히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윤희 특파원

일본 이와테현 북부서 규모 6.1 지진...지진해일 우려 없어

일본 이와테(岩手)현 북부에서 2일 오전 4시 24분께 규모 6.1 지진이 발생했다고 현지 공영 NHK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진원지는 이와테현 연안 북부로 진원 깊이는 80km였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津波) 우려는 없다.

아오모리(青森)현과 이와테현 일부 지역에서 진도 5약이 관측됐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의 흔들림을 진도0-진도1-진도2-진도3-진도4-진도5약-진도5강-진도6약-진도6강-진도7 등 10 단계로 나누고 있다. 진도 1이 가장 낮

은 수준이다.

진도5약은 책상 위의 책 등이 떨어지거나 고정되지 않은 가구가 이동하고, 불안정한 물건이 쓰러지는 정도의 흔들림이다.

도호쿠(東北) 전역에 따르면 진도 4 흔들림이 관측된 아오모리현 하가시도리무라(東通村) 소재 하가시도리(東通) 원자력발전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중이다.

또한 진도 3 흔들림이 있었던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六所村)에 위치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 등 원자력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사업자인 일본원연주식회사가 영향이 없는지 확인 중이다.

김예진 기자



인천환경공단
ENVIRONMENTAL COOPERATION OF INCHON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환경도 도시도 시민도 활짝





안전 지키GO!
전국 첫 도시침수 예방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자원 다시쓰GO!
공기질 선도 공단
폐기를 자원순환 100% 달성



기후변화 맞서GO!
2030 온실가스 83% 감축,
기후변화 선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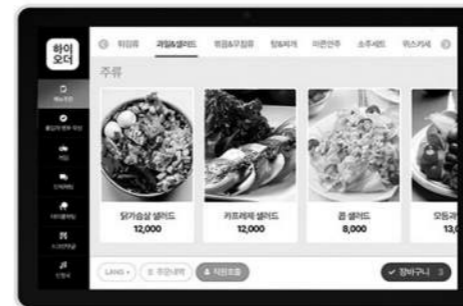
서비스 올리GO!
환경교육 인프라 및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kt

“
주문접수도 결제도
대신 받아주고
맛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매장 경쟁력이
더욱 올라가더군요
”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KT



하이오더

- ✓ 회전율 개선 · 운영비 절감
- ✓ 다양한 결제수단 · 외국어 지원
- ✓ 안정적인 네트워크 · 전국 지역 A/S

하이오더란? 손님이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과 결제 가능한 프리미엄 테이블 오더 서비스



“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과 결제를
한꺼번에 하니까
너무 편리해요
”

정부, 의료개혁에 대한 의료계의 합리적 방안 요청



보건복지부 보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시스

“집단행동 하면서 논리없는 주장 반복 곤란”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로부터 합리적인 제안이 제시될 경우, 이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병왕 보건외교정책실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전한 내용이다.

전 실장은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집단행동을 통해 주장만을 반복하는 현재의 방식이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며, 10년 후에는 최소 1만 명의 의사가 추가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중증 및 응급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 실장은 언급했다. 또한, 전 실장은 최근 의대 교수 및 개원의들 사이에서 발생한 진료 축소 및 단축 조치에 대해 언급하며, 서울의 주요 5대 병원 교수 중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자들을 위해 진료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을 높이 평가

했다. 그는 의료 현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들의 복귀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현장으로 복귀하는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지난 3월 12일부터 운영해 왔으며, 이후 의대 교수에 대한 신고 접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전 실장은 의료 역량 감소와 관련하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일부 의료 역량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전 실장은 의료진 이탈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언급하며, 정부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유연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필요 조치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명시했다.

이번 의료개혁 사태와 관련한 대화의 여지에 대해 전 실장은 새로운 의협 비대위를 통한 의료계 대표와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열린 입장을 보였으며, 사태의 종료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 시점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지속하고 국민의 의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나래 기자

국민의힘, 총선 앞두고 변화·소통 약속... 유권자들에게 재기회 호소

4월 10일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정부와 여당의 실적을 인정하고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는 국민의 불만을 듣고 개선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와 함께, 여러 실질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민심을 얻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진전통시장 지원유세에서 정부와 여당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소통 부족 등을 지적하는 유권자들의 의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57%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3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의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다자녀 가구의 대학등록금 면제, 부가가치세 인하 등 다양한 현금성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다자

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고, 일부 생활필수품의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충청 민심을 고려해 국회의 세종시로의 완전 이전을 약속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공약도 제시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전략은 정권심판론과 함께 확산되는 범야권 200석론에 대응하고, 위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유권자들에게 변화와 개선을 약속하며 새로운 지지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용국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충남 당진시 당진전통시장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당진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정용선 당진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재명, 대장동·성남FC 관련 공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공판에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주재로 열린 이번 재판은 이 대표에게 제기된 여러 혐의를 심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표는 법원 출석 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3일을 법정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이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 상황을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표현하며, 그래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공판은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 유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공판 출석으로 인해 총선 유세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한편 혐의의 핵심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 김민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특혜를 줌으로써 7886여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점, 그리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부조정실장과 공모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특정 사업에서 배제시킨 혐의 등이다. 박용국 기자

대통령, 장바구니 물가 안정 위해 무제한 자금 투입 지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국민이 이를 체감할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농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할인 지원 및 수입 과잉 공급 등의 기존 대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유통 경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대책 확대를 포함한다. 윤 대통령은 또한 경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체감 물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농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할인 지원과 수입 과잉 공급 대책을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중소형마트와 전통시장에까지 확대하고, 온라인 도매시장을 포함한 새로운 유통 경로를 활성화하여 농수산물을 소비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위한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를 지시했으며, 이상저온 및 서리와 같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뉴스시스

마트 과수원 확대와 기후 변화에 강한 새로운 품종 개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용국 기자

오픈AI, 도쿄에 아시아 첫 거점 개설... 삼성·SK와 협력 주목

오픈AI가 도쿄에 아시아 첫 거점을 마련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생산 협력 가능성이 관심을 끌고 있다.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삼성과 SK 경영진과의 만남을 통해 협력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도쿄 사무소 개설이 양사와의 실질 협업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오픈AI는 도쿄에 ‘오픈AI 재팬’ 사무소를 개설하고 AI 관련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 사무소에서는 기업 대상 AI 서비스 판매, 생성형 AI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규범 설정, 일본 내 AI 인재 채용 및 고객 지원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브래드 라이트캡 오픈AI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오는 15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운영 방침을 설명할 계획이다. 오픈AI는 이 사무소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 AI 사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글로벌 AI 규범 마련에 적

극적인 움직임도 오픈AI의 도쿄 거점 설립 배경 중 하나로 보인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오픈AI와의 협업 가능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업계는 오픈AI의 도쿄 사무소 개설이 소프트웨어 등 일부 기업과의 협력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협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나래 기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다양한 체험이 가득한 경북 농촌으로 오이소!

경북농촌체험관광 통합포털 **오이소**는 농촌체험·관광·여행·음식·숙박 관련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동감 있는 여행 및 관광지 정보 제공
여행객의 목적지, 여행 기간, 소요예산, 여행 목적, 여행 방법, 최적의 Package Tour 스케줄 안내 등 여행정보를 제공합니다.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득한 소통창구
SNS 공유, 리뷰 등록, 오이소 기자단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의 공유가 가능한 소통의 창구를 제공합니다.

경북농촌체험관광 홍보 콘텐츠 제공
경북농촌체험관광 통합포털에서는 영상, 사진, 글, 그림 등 다양한 정보 및 홍보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체험·관광상품 판매
최신 트렌드, 감성, 테마, 스토리가 반영된 체험·관광·음식·숙박 축제 등의 체험상품을 판매합니다.

www.gbois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108개 학교에서 생명존중 및 나눔 교육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 이하 본부)가 올해 4월부터 108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생명존중 및 나눔 교육을 진행한다.

본부는 “국내 최초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생명존중 및 나눔 교육을 시행하며 ‘장기기증’의 정확한 정보와 가치를 알려 왔다”며 “장기기증 인식 확산 및 성숙한 문화 정착을 위해 14년간 교육을 지속해 왔다”고 했다.

◆서울 65개교 초·중·고등학생 15,968명 대상 교육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생명존중 및 나눔 교육인 ‘모든 생명은 소중해’는 올해 65개교 15,968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교재를 제공하며 생명 존엄성과 장기기증의 가치를 전한다.

심장이식의 과정을 여행으로 표현한 그래픽과 실제 장기이식인의 사연을 각색한 동화를 통해 생명나눔의 의미를 배운 학생들은 몸속 장기의 위치와 기능을 알아보고 심장 박동을 직접 느껴보는 활동 등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스스로 체득할 수 있게 된다.

수업 말미에는 장기기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눔 활동에 대해 배우며 학급 친구들과 응원 메시지를 교환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을 비롯한 주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본부는 전했다.

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교육에 참여한 초·중·고등학교의 담당 교사 54명 중 87%는 생명존중 및 나눔 교육이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 고취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



생명존중 및 나눔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했으며, 이어 83%가 타인에 대한 이해 및 공감 능력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답했다.

서울 수리초등학교 지도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어렵지 않게 생명의 소중함과

장기기증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국 43개교 20,096명 청소년 대상

‘생명사랑나눔운동’ 전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1천8백 회의 교육을 통해 108만여 학생들이 만난 생명존중 및 나눔 교육 ‘생명사랑나눔운동’은 올해 43개교에서 20,096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먼저 생명존중 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를 이해할 기회를 마련한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등을 알아보고, ‘MOOD METER(감정 위계)’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는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돕는다고 한다.

이후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실천하는 일 중 하나인 나눔 활동을 알아보고, 장기기증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배운다. 뇌사 장기기증인 및 간 이식인의 사

연을 통해 생명나눔의 가치를 발견하고, 장기기증의 종류 및 절차, 희망등록 방법 등을 안내하며 청소년이 스스로 생명나눔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본부는 전했다.

본부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생명사랑나눔운동’에 참여한 학생 5,4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743명(32%)이 교육 후 장기기증 희망등록 참여 의사가 생겼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들이 희망등록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로 ‘기증인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싶어서’를 가장 많이 선택해 해당 교육을 통해 접한 기증인의 사연이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 함양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사랑의열매, 청소년 도박·마약 등 중독예방에 37억 지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가 도박·마약·알코올·인터넷 등 중독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37억 원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9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중독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배분금 전달식에는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7개 기관 담당자들과 사랑의열매 이정은 나눔사업본부장,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청소년의 도박·마약·알코올·인터넷 등 중독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

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0대 청소년 40.1%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며, 초·고등학생 중 4.5%는 30내 흡연, 13.0%는 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 2월 발간한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에서 19세 이하 도박중독 치료환자 수가 △2018년 68명에서 △2022년 114명 △2023년(7월 기준) 104명으로 나타났으며, 10대 청소년의 도박범죄 검거 현황도 2012년 12명에서 10년 만에 △2022년 7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청소년 중독 문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

지만, 중독 관련 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과 관리 인프라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에 특화된 중독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수행기관 7곳을 대상으로 3년간 37억 원을 지원해 지역 내 청소년 관리기관과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한 청소년 중독 예방·회복 네트워크를 형성할 방침이다.

사랑의열매 이정은 나눔사업본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 중독 예방·관리 체계를 통해 미래세대 아동·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의열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독’은 물질 및 행위에 신체적·심리적 의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부는 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중독을 4대 중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생명존중 및 나눔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기아대책, 말라위 ‘중등교육 역량 강화’ 사업 성과 발표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 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은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 간 말라위 데자(Dedza) 지역에서 진행한 ‘중등교육 역량 강화 사업’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기아대책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민간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사업을 평가·진단하고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고서에 수록된 성과 측정은 신재은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연구교수팀이 수행했다.

성과 측정 결과, 현지 학생들의 ‘말라위 중등 자격시험(MSCE) 통과율’이 사업 전 45.6%에서 54.3%로 증가해 본 사업이 데자 지역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인 것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말라위 데자는 해발 1,590m의 산악 지역으로 학업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전체 학교 48곳 중 절반 이상은 교육 시설이 낙후됐으며 문맹률이 43%(30만 6248명)에 육박한다.

특히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 간 말라위 데자(Dedza) 지역에서 진행한 ‘중등교육 역량 강화 사업’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아대책

휴교령이 내려진 가운데 원격 교육이 어려운 현지 특성상 학생들의 학습 공백이 심화됐다.

이에 기아대책과 한국국제협력단은 데자 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증진을 위해 총 13억 8000만 원을 투입하고 8곳의 시범학교 학생 2,613명을 대상으로 말라위의 대중매체인 ‘라디오’를 활용한 중등교육 방송을 제공했다.

이를 위해 말라위 교육 전문 대학 교수진과 협업해 양질의 라디오 교육 콘텐츠

614종을 개발하고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태양광 라디오를 보급해 ‘원격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했다.’

사업 진행 기간 동안 총 256명의 교사들과 정기적으로 교육 워크숍도 진행해 라디오를 활용한 교육 및 학업상담, 학급 관리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했다.

앞서 기아대책과 한국국제협력단은 라디오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라디오 송신소와 스튜디오를 세우고 말라위 통신규제위원회에서 채널 승인을 받았다.

최승연 기자

‘국제어린이마라톤’ 5월 4~6일 열려... 원슈타인도 달린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홍보대사인 원슈타인이 올해 2024 국제어린이마라톤에 함께 달린다고 최근 밝혔다.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날 휴일 동안 열릴 2024 국제어린이마라톤은 서울(삼암월드컵공원)과 경기(안양 평촌 중앙공원), 세종(세종호수공원), 전주(농촌진흥청), 부산(영호빛빛공원), 대구(두류공원) 등 6개 지역과 더불어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방식으로 함께 진행된다.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인 원슈타인은 6일 서울에서 참가한다.

참가 아동과 가족은 약 4km의 미니

마라톤 코스를 달리며, 마라톤 참가비는 전액(2만 원) 세이브더칠드런의 ‘아프리카에 빨간염소 보내기’를 통해 탄자니아의 영양 및 생계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아프리카에 빨간염소 보내기는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기근, 식량 가격 폭등으로 식량 위기와 빈곤, 영양실조에 놓인 아프리카의 아동과 가정에게 주요 생계 수단이 될 염소를 지원 하는 사업이다.

염소는 건조한 날씨의 아프리카에서 비교적 키우기 쉽고, 1년에 최대 두 번의 출산이 가능해 가정의 안정적인 소득과 경제 자립을 도울 수 있다. 또한, 신선한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인 원슈타인이 올해 2024 국제어린이마라톤에 함께 달린다. 사진은 현지식 주먹인사 ‘말락’을 하는 원슈타인과 현지 아동 루시아. ©세이브더칠드런

우유를 제공해 식량 위기에 대응해 성공적인 사업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승연 기자

동아증권

동아보감

경옥고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다음 경우의 자양강장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갱년기 장애

동아보감 경옥고는 동의보감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완성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원산지: 60호(23g x 10호 x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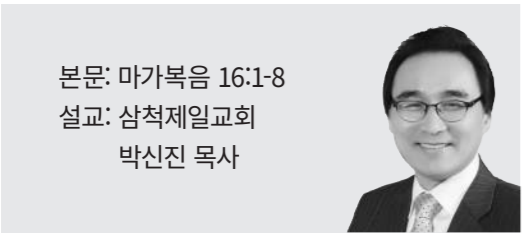
자양강장 ·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갱년기장애 · 권태

동아증권

일민약품 | 광고심의필 | 2023-1688-0036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처방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행복한 부활절



본문: 마가복음 16:1-8
설교: 삼척제일교회 박신진 목사

오늘 부활란은 특별히 구운 달걀을 예쁜 포장으로 싸서 나누어 드린다. 부활의 기쁨과 의미를 기억하기 바란다. 서양에서는 부활절에 어른들은 서로 삶은 달걀 꾸러미를 선물하고, 아이들에게는 예배 후 교회 정원에 숨겨 둔 달걀을 찾게 하는 풍속이 있었다. 달걀 찾기(egg hunt)라고 하는 이 행사에 토끼와 초콜릿이 더해졌다. 토끼는 한 번에 새끼를 많이 낳는지라 새 생명의 상징이고, 토끼 역할을 맡은 사람이 달걀 숨기는 역할을 맡아 재미를 더했다고 한다. 초콜릿은 달고 부드러운 서양의 기념일마다 등장하는데, 특히 독일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으로 부활란을 만들어주는 전통이 전해진다. 요즘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초콜릿으로 달걀 모양을 만드는데, 서양의 부활절 전통에서 유래된 것이다. 부활절에 예수의 부활을 만나고 그 의미를 가르쳐주며 함께 기뻐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 날짜는 325년에 열린 제1회 니케아 공의회에서 확정되어 1700년 동안 지켜왔다. 그 날짜는 춘분(春分)인 3월 21일(20일) 후, 최초의 보름달 다음에 오는 첫째 주일이다. 예수님이 유월절 다음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월절에 맞춘 날짜이다. 이 때문에 부활절을 히브리달 유월절과 같은 말인 파스카라고도 불렀다. 성탄절은 12월 25일로 정해져있는 반면, 부활절은 매년 춘분 다음 보름달 날짜가 달라 달리 정하여 지킨다. 이에 따라 매년 부활절은 3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날짜를 매년 바꾸어 지킨다.

경제의 전체, 정치의 불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테러와 전쟁의 소문들,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세속주의와 타락 등, 우리는 정말 격정이 되고 두렵다. 문제는 우리에게 깊이 드리워진 죽음에 대한 불안과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픔이 위로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 주신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다! 살아나셨다!' 보라, 그를 두웠던 곳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다. 게바라고도 불렀던 베드로는 덤벙거리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재판받던 밤에 맹세하며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달려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는 완전히 변화된다. 급한 성질과 변덕의 아이콘이 확신과 의리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자신있는 여자로 변화된다. "랍오니여"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를 때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비극은 승리로 바뀌었다. 마리아는 더 이상 과거의 사랑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슬픔에 빠져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옛 사랑과 청춘을 죽은 고목나무처럼 볼품없고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제까지

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부활의 아침, 여러분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한다.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길 때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기를 축복한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아침을 맞이할 때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할렐루야! 부활은 온 세상을 깨우고, 죽음의 권세 아래 눌러 신음하는 모든 사람을 일깨워 새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가 살아나셨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무덤은 비었고 예수는 부활하시어 갈릴리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시대에 살아계심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확신을 얻으며, 이 의심의 문화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본문, 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 부활의 세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것이다. 빈무덤은 부활을 말할 때 교회가 항상 말하는 팩트의 중심이다. 살아서 어디로 가시고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여러사람에게 보이셨다는 등의 이야기는 약간 신화적인 말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덤이 비어있었고, 시체 누우셨던 곳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무덤이 비었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죽음이 부정되었다는 것이다. 죽음이 죽었다, 부활로써 무덤의 절망은 거부되었다.

둘째,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처음에 그들은 기뻐하기보다 놀랐고 두려워했다. 사람들은 부활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다. 부활은 그들의 믿음이나 기대를 초월한 사실이었다는 말이다. 하나님 주도적인 예상치 못한 역전의 사건이었다. 부활을 어떻게 믿어야? 무슨 설명이나 학술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직접 나타나신 때에 제자들도 못 믿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따라,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으로 믿을 수 있다.

셋째, 부활 이후에 천사들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다. 갈릴리지는 오랫동안 변두리 지역 반역의 땅이었다. 이처럼 부활의 생명은 버려진 땅,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갈릴리에서 나타나고 전파되어야 했다. 말하자면 강연도 시골로 내려가는 것이다. 낮은 곳으로 가라! 그리하여 사랑을 실천하라! 소외된 땅으로 가라, 그리하여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따뜻한 손을 잡아주어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뜻이었다.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사랑의 힘으로 부활하셨으니,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여자가 교통사고로 정신을 잃고 마비가 되어 식물인간이 되었다. 남편이 아내를 8년간이나 돌보았다(박철규 허금숙 부부) 의사도 1년간 치료를 하다가 포기하라고 권유하였다. 가능성이 없다는 거였다. 진정 부모들도 포기할 것을 권유했다. 산 사람이기도 살아야하지 않겠느냐는 거다. 그런데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부인의 대소변을 받고 목욕을 시켰다. 1.2년이 아니라 8년이다. 나중에는 자기 병 난 줄도 모르고 부인을 보살폈다. 하늘이 감동하여 부인이 8년 만에 깨어났다.

사람구실을 하게 되었다. 기자들이 몰려와서 물어보았다. 어떻게 그렇게 8년이나 간호를 했다, 살 줄 알았나? "희망보다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고

아 출신인데, 저에게 피붙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나를 처음으로 사람대접해준 사람이 우리 아내였습니다." 진정 부모들이 고아라고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부모님을 설득해서 결혼했다. 직장생활 하다가 해고당한 적이 있었는데, 부인이 기분 나쁜 내색도 없이, "당신만 있으면 돼, 염려하지 마!" 하고는 그날 삼겹살을 구워주었다. 거기에 감동을 받았단다. "내 아내는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준 사람입니다. 내가 8년간 버틴 힘은 저를 향한 아내의 사랑과 희생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했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나와있고,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여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성경말씀의 핵심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사랑의 힘으로 낙심한 제자들을 일으키셔서 갈릴리로 달려가게 했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그 사랑에 감동한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 부활하신 사랑의 주님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을 보여준다!

영국 런던에 가면 캔터베리 대성당이 있다. 그곳에 니콜라이라는 관리집사가 있었다. 그는 17세 때부터 교회에서 관리집사로 일했다. 그가 하는 여러 일 중에 한 가지는 교회 종을 치는 것이다. 그가 얼마나 정확한 시간에 종을 쳤는지 런던 사람들이 자기 시계를 니콜라이 집사의 종소리에 맞추었다. 지금은 좋은 시계가 많아서 틀리지 않고, 다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옛날에는 시계를 맞추곤 했다. 그래서 시계의 시간을 맞추려면 니콜라이 집사의 종소리에 맞추었다.

니콜라이 집사의 자녀들이 잘 되었다. 큰아들은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와서 나중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둘째 아들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니콜라이 집사는 76세에 은퇴를 했는데, 그는 은퇴 후에도 종 치는 일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너무 정확하게 때문에 계속하여 그 일을 맡겼다. 그 후 니콜라이 집사는 마지막까지 종을 치고 그곳에서 쓰러져 죽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소식을 듣고 니콜라이 집사의 장례를 휴일로 선포하고 런던 모든 곳이 문을 닫고 추모하였다고 한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니콜라이 집사를 황실 묘지에 안장해 주었다. 엘리자베스 시대에 수많은 유명 성직자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황실 묘지에 묻히지 못했다. 그런데 니콜라이 집사는 죽고 나서 이런 영예를 누렸다.

무덤이 비어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주,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자. 그들은 두려워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겸손하게 두려워하며 떠는 사람에게 찾아오신다.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자기의 일에 충성하라고 부활 생명을 모든 제자들에게 나눠주신다!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본**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본**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본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업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발급금

침재된 국가자본의 가치를

- 유류 지원용 국유채권 관리
- 노후 국공유채권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캠코 신비금융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기독교대한감리회 2024년 ‘녹색연회’는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2)

박은순 목사
원천교회 담임



지난 호에서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들어가는 말 1. 주제해설
- II. 무엇이 문제인가. 1. 주제해설에 나타난 범신론 2. 설교문에 나타난 문제들, 범신론 및 하나님을 피조물과 동등으로 여김.

금번 호에서는 위 2. 설교문에 나타난 문제들, 범신론 및 하나님을 피조물과 동등으로 여기는 것은 생태신학의 정의와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으로 이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을 통해 반론하고자 한다.

1) 하나님이 살기 좋은 세상을 왜 심판 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창 2:17)하셨으나 아담은 먹었으며 “그는 구백삼십 세를 살고 죽었더라”(창 5:5).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에덴에서 추방을 당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절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팔백수십 세를 넘어 살았으며(창 5장) 환경이 오염이 되지 않고 무병장수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왜 세상을 몰라서 심판을 하셨을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 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나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창 6:5-8)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심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 인생들이 자신이 신이 되고 우상이 되거나, 물질이나 자연이나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까닭에 하나님은 전혀 오염이 되지 않고 그 아름답던 세상을 몰라서 심판하신 것이다.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하셨다. 천지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은 구별하여 구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의다.

환경운동을 하고 금번 ‘녹색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어떤 목사는 말하기를 “자연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사람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기록해 보이지 않느냐?”고 필자에게 물었는데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살전 5:3-4)

2)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어찌라?

“길 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 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마 21:19)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적들을 행하셨다. 그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본체이심을 드러내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려 하심이었다. 자연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 이 세상에서 천년 만 년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생태신학을 말하고 환경을 말하는 자들과 달리 오히려 예수님은 귀신들려 고통 받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전 마리아 되는 돼지 때를 바다에 몰살시키셨다. 요한 계시록의 말씀은 어떠한가? 보존하고 가꾸려고 하는 이 세상을 오히려 하나님은 처음 것들을 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계 21:1)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 받은 아담이 비록 타락하였으나 변함없는 사람으로 영원히 쇠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그 나라를 주시려고 성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이다. 이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다(엢 1:3-14). 그러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다. 물론 그 나라를 향해 준비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매우 소중하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던가? 그 사랑은 자연도 동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 보다 더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당연히 순종하게 된다.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3은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기에 청지기적인 소명감으로 모든 피조세계를 사랑으로 돌본다. 환경운동가든가, 생

태신학자라든가, 인권운동가라 칭하지 않아도 모든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존재의 근원이신 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찌 사랑하는 분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주신 선물을 어찌 경솔히 여길 수 있겠는가?

3. 주제 성구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성경적 의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7회 반복하여 말씀하셨다. 단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여러 해석들이 있으나 필자는 노아 홍수 때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창 7:11b-12)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 공의도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에 좋아하셨다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창 1:6-8)

하나님이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으며 공창을 하늘이라 이름 하셨다. 그 하늘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야 하겠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얹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어찌 되었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3-4a) 지으신 것을 보시고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것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의미는 창조주 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에서 ‘좋았더라(히, 토브)’는 자연은 물론 인간이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에 있을 때 선한 것이다. 반면 아무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더라도 피조물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해도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다. 첫 사람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기억해보자. 하나님이 금하신 말씀을 어긴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롭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창 3:22-24)

앞서 김민석 목사의 설교문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단지 인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살기 좋은 에덴동산에서 아담을 추방시킨 사건이나,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그 살기 좋은 세상을 몰라서 심판하신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러한 사상을 중심으로 일 년에 한 번 모이는 감리교회의 대 축제일인 연회 때 ‘녹색연회’라는 이름을 붙여 헌금도 하고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함께하는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그 헌금을 나누어 주시고 하니, 이 대체 어떤 감리교회인가? 한 책(성경)의 사람이길 그토록 열망하며 세운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맞는가?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최근 인류역사에서 가장 큰 마귀의 성공 두 가지를 꼽으라면, 1850년 대 세상을 미혹한 ‘진화론’과 ‘공산주의’입니다. 오늘날의 학교 교육을 점령했다고 할 수 있는 ‘진화론’은 모든 것이 하등한 단계에서 고등한 단계로 진화를 거쳐 발전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므로 타락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세상은 진화가 아니라 회복이 정답입니다. 신앙도 저절로 진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안일해져가려는 죄성의 본능을 이기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성장하게 됩니다. 또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마음을 계속 지켜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이기에 반복이 실력이라는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일 안 해도 다 똑같이 평등하게 잘 사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무서운 미혹인

데, 놀랍게도 인류의 반 이상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주의(Capitalism)에 반대되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Socialism)는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하나님 없이 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죄성의 인간이 어떻게 똑같이 평등을 이룰 수 있겠으며, 자기를 개발하며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가까운 북한의 가난을 비롯하여 소련과 동구권의 낙후함과 남미 국가들의 몰락과 같이,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소수의 공산당원들만 잘 살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하향평준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이 만들 유토피아가 아니라 주님께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대로 인류 구원의 모든 일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고전 15:3-6) 성경대로 이루신 부활이

믿어지면 재림하실 주님과 성경대로 이루어질 천년왕국과 영생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믿어집니다. 성경대로 부활을 믿으면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은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부활을 믿으면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집니다. 원수마귀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고, 세상에서 고난의 끝은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부활을 믿으면 누러지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바른 믿음이 우리와 가정과 다음 세대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렘!

SAMJIN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광고심의필: 2022-1618-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조피타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깨결림), 타박상, 골절상, 염좌통(염좌통),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있을수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

상품 및 구입문의 : 080-082-1234 (수신자 부담)

동성애 원인론 종합, 그리고 치유의 희망



민성길 교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크리스천이 본 섹슈얼리티

최근 미국 심리학회가 동성애 정의를 동성간 "감정적 끌림"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 심리학회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감정적 끌림은 우정을 사랑(愛)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간 성적 끌림을 느껴 동성간(homo-) 성행위(sex)를 하는 것이다. 우정은 성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우정에 섹스가 섞이면 우정은 손상된다. 우정과 섹스는 구분되어야 한다. 성적 끌림은 부부 형성의 생물학적 기초이고, 우정은 사회형성의 인간적 기초이다. 만인의 만인과의 섹스는 우정과 사회를 모두 붕괴시킬 것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성학자들은 프리섹스의 근거로서 사랑 대신 "친밀"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인간을 원숭이 보노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에서 벗어나기 희망한다. 이는 동성 친구를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동성간 성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동성간 성행위를 하지 말도록 깨닫게 하는 과

정을 상담 또는 전환치료 또는 회복치료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치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동성간 성행위가 병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동성간 성행위를 병적이라 함은, 동성애가 자연을 거스리는 행위이며, 따라서 신체적 합병증과 동반 정신건강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지난 줄고 24-30회 칼럼 참조)

우리가 동성애를 치료하려 한다면, 동성간 성행위를 하는 원인을 알아야 할 것이다.

동성간 성행위의 원인에 대해 미국 정신의학회나 미국심리학회가 설명한 바는 다음과 같다: "아직 과학자들 사이에 합의된 이론은 없으며(모르며), 아마도 생물학적(유전적), 환경적, 및 발달적 원인들이 복합된 것일 것이다." 그런데 그 환경이란 태아의 자궁내 환경을 의미하며, 가족이나 사회적 환경이 아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동성애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0년대 최근의 연구들은 동성애와 소아기 트라우마 또는 역경 경험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고 있다. 줄고 38, 39차 칼럼 참조) 그리고 "선택"은 아니라고 못 박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동성애 유동성은 인정하고 있다. (줄고 41차 칼럼)

이러한 학술단체들의 "과학적" 주장에 따라, Wikipedia도 동성애가 가족문제, 또는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다는 논문(empirical studies 또는 peer-reviewed research)은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사실이 아니다. 동성애의 정신사회적 원인에 대해서는 정신분석적 정신성 발달이론, 어린 시절 가족 환경, 그리고 최근

종합적으로 소아기 역경(적대) 경험 -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발달적 연구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다. (줄고 35-41차 칼럼)

정신분석적 전환치료는 20세기 초에서 1970년대까지 동성애의 정신의학적 표준치료였다. 1950년대 학습이론에 근거한 "혐오치료"가 있었는데, 역시 60% 수준에서 성공적이라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이는 동성애자에 대한 학대라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습이론에 근거한 행동치료는 지금도 교육과 의학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정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가 바로 행동치료이다.

또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동성애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32-34차 칼럼) 다른 선천성이라는 이론은 모두 가설 수준이다.

기질이나 성격은 타고나는 요소가 많다. Ganna 등이 2019년 발견한 동성간 성행위와 유전적으로 관련된 성격(행동) 특징(특성 traits) 들은 동성간 성행위가 병적임을 시사한다.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동성간 성행위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위험 행동, 흡연, 대마초 사용, 불행감, 조현병(정신분열병), 주요우울증, 양극성장애, ADHD, 외로움, 경험에 개방성, (여자) 첫출산시 나이, 섹스파트너 수(문란하다는 의미) 등.

또한 동성애자들에서 이성애자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더 많이 가지는 특성들은 음주, 식욕감퇴, 불안, 자기평가 건강 문제, 자폐증, 신경증성(neuroticism), (남자) 첫 출산시 나이,

폐경시 나이, 초경시 나이, 등이었다. 별 차이 없는 특성들은 자녀 수, 키, 허리/둔부 비례, 체중, (손가락의) 2D/4D 비례 등이었다.

2012년 Drabant 등은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이성애자 남자들 보다 다음과 같은 행동 특성들이 더 많다고 하였다: 잘 운다, 운동을 적게 한다. 독신이 많다, 여행을 적게 한다, 군대경험이 적다, 모험심이 적다, 낙관성이 적다, 스트레스가 많다. 밤새 말는 능력이 뛰어나다, 수학 능력이 뒤진다, 일 부일처제적(monogamous)이지 않다(성적으로 문란하다), 자녀가 적다, 병이 많다(에이즈, 알러지, 간염, 치질, 고혈압, 낮은 HDL) 등. 또한 여자 이성애자들에 비해 여자 동성애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양심적이다, 임신경험이 적다, 비만이 많다, 술, 담배 등 중독 장애가 많다, 남자 동성애자에 비해 비교적 일부일처제적(monogamous)인 편이다, 자녀가 적다, 등.

최근 동성애와 자폐증 사이의 관련성이 부각되고 있다. (참고 31차 칼럼) 자폐증은 신경발달의 장애로 알려져 있다.

또한 19세기 정신의학자들과 신경의학자들은 동성애는 뇌의 퇴행성 장애라 보았다. (퇴행성이란 뇌의 퇴화, 즉 노인이 된다는 의미. 노인은 환동(還童)한다고들 말한다)

이 모두 동성간 성행위의 미숙함을 시사한다. 고전적 정신분석에서 말했듯이, 동성애는 발달의 문제이며, 자기에의 한 표현이다.

요즘 동성애자들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자기에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자기를 사랑하라", "나를 위한 선물", 섹스, 자기결정권, 등등이 바로 자기애적이다. 이는 요즘의 "자폐증적"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다. 요즘 세태란 이웃 사랑에 헌신하기보다 자기애와 자위에 중독된 것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동성간 성행위를 하는 이유를 의학적 자료를 통해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모든 설명은 궁극적으로 동성애를 병적으로 보고, 치료, 치유 내지 회복이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원인을 알아야 치료방침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 행위를 약물이나 수술로 치료하지 못한다면 (19세기 말-20세기 초, 그런 방법들은 모두 실패했다) 정신사회적 방법으로 치료해야 할 것이다. 정신적 원인은 정신치료로, 사회적 원인은 사회적 대응으로 치유해야 할 것이다.

동성애가 인격 발달의 문제라면, 치료는 "발달"을 증진하는 방법을 통해서일 것이다. 동성애가 미숙성함과 자기에 때문이라면, 이를 극복하고 성숙한 이웃사랑으로 성장하여야 동성애가 치유될 것이다.

동성애 성행위를 그만두게 하려는 모든 정신치료나 상담은, 과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인격을 성숙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동성애 치유의 희망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전 13:11)

부활 속에 담긴 승리의 비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부활 속에 승리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5:57).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유전자(DNA)가 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승리의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승리의 비밀은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

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 15:3-4).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히 11:3).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있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롬 4:17).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선포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말의 능력입니다. 언어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말은 살아 있는 생명력입니다. 말을 하면 그 말이 역사합니다. 말이 파장을 일으킵니다. 말이 결과를 창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창조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승리의 비밀은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능력입니다. 고통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요일 4:18). 사랑은 두려움을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성숙한 사랑을 배웁니다. 또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 받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 3:16).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죽으셨고, 사랑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승리의 뿌리는 사랑에 있습니다.

셋째, 승리의 비밀은 고난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 부활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승리를 원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

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요 12:23). 예수님이 걸어간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간 길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함께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액체는 세 가지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되었습니다(눅 22:44). 피는 생명입니다(레 17:11).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용서의 피입니다. 우리 죄를 없애는 보배로운 피입니다(벧전 1:19).

예수님의 승리는 고난을 통과한 승리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과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 후에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십시오.

넷째, 승리의 비밀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히 11:1). 믿음은 거룩한 기대입니다. 믿음은 성스러운 상상력입니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믿음은 고난 중에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

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하). 믿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엡 2:8-9; 롬 1:16-17).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요 1:12).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롬 3:26, 30). 믿음의 선포로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막 11:23).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막 11:24). 믿음으로 오래 참는 중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됩니다(히 6:14-15).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합니다(롬 10:17). 믿음은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성장합니다(요 15:7).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할 때 성장합니다(약 2:26; 마 7:24).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자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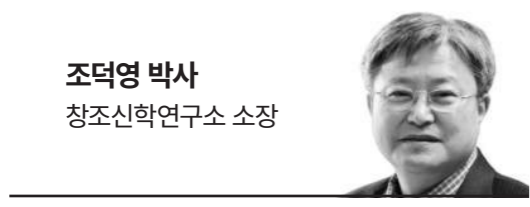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환경부 |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조덕영 박사
창조신학연구소 소장

(1) 자연 속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가? 예수 계시 속의 '베스티기움 트리니타티스'(삼위일체 흔적, Vestigium Trinitatis)

인간은 육체를 가진 피조물이다. 육체라는 제한적 조건 속에서 인간은 초월적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의식할 뿐이다. 계시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인식이란 주로 유비(analogia)를 통해 전해진다. 초월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그 흔적이 피조세계 속에 구현되었을 것이라고 유추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롬 1:20). 토마스 아퀴나스도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원인이기에 그 결과로서 창조 질서 속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유사성"(similitudo)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성육신하신 예수께서도 자연 계시 안에서 우리 인류에게 당연히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주시지 않았을까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2)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자들의 관심
어거스틴은 이 희망을 가진 대표적인 신학자였다. 어거스틴이 주목한 것은 하나님이 이성을 만드셨고 이성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완전한 분이다. 그리고 그가 만든 자연은 정교하다. 자연을 대충 만

드셨을 리가 없다. 자연 계시라고 불충분하게 주었을 리가 없다. 따라서 자연 계시 안에는 삼위일체의 흔적조차 정밀하게 남아있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쪽에 있다. 사람의 지성과 추론 능력은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크게 다르다. 논리적 추론으로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 유리하다. 스티븐 에반스(C. Stephen Evans)는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성은 당연히 복음의 전 유물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성이 복음의 방해물인 것은 아니다. 이성은 복음의 조력자이다. 이성을 완전히 무시한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 이성은 다만 충분하지 못할 뿐이다. 하지만 충분하지 못하다고 버려서는 안 된다. 이성이 복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과 상식이 무시된 곳에 복음의 장애물이 나타난다. 상식을 무시한 곳에 나타나는 성경 이외의 새로운 직통 계시의 출현이 그것이다. 부족함에도 우리 인간은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진리를 바르게 선포해야 한다.

(3) 자연에 나타난 '삼위일체의 흔적'(Vestigium Trinitatis)

어거스틴은 복음을 결코 무시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인간의 자유 의지를 강조한 펠라기우스를 그렇게 철저히 비판하지 않았던가. 이성도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하나님이 내리신 선하신 도구이다. 어거스틴은 이 문제에 천착(穿鑿)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분명 세상에는 신적 흔적(痕跡)이 계시되고 남겨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의 자연에 대한 관심은 삼위일체를 해석하는 도구로서의 자연에 나타난 '삼위일체의 흔적'(Vestigium Trinitatis) 찾기로 나아간다.

물론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흔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을 찾으려는 시도를 우매한 시도로 여기는 반론이 늘 있었다. 현대신학자 칼 바르트는 늘 그 선봉에 있었다. 바르트는 자연과 은총을 대립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어떠한 종류의 자연신학도 단호히 거부한다. 이렇듯 자연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는 작업은 성경에서 찾는 삼위일체의 논증에 비해 완전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삼위일체에 대한 유비(analogy)와 흔적 연구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부분의 대가인 어거스틴도 솔직히 인정한다. 그러나 유비와 흔적을 찾는 작업은 아쩔 수 없이 피조물인 인간의 제한 아래서 인간에게 여전히 많은 유익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즉 하나님이 모든 진리의 궁극적인 원천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유비적인 논법에 의미가 부여된다. 죽음을 향해 가는 피조물에게 완전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터툴리안(Tertullianus, 163-225)은 삼위일체의 삼위를 '뿌라 나무줄기 열매의 관계로 묘사하거나 '샘 시내 강'으로 묘사하거나 '태양광 산광선의 중첩점의 관계로 묘사하면서 이것이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받은 계시라 했다. 캔터베리의 대주교 안셀름(Anselm, 1033-1109)은 나일강에 있는 '샘, 시내, 호수의 존재와 상호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를 비유했다. 샘은 시내가 아니고, 시내는 호수가 아니며, 호수는 시내가 아니지만 세 나일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의 나일강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샘, 시내, 호수는 각각 그 자체로 세 나일강이라는 것이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샘을 시내로부터나 호수로부터 꺼낼 수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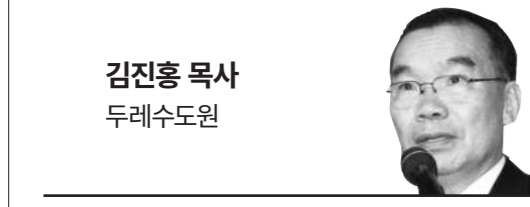
것 같이 새내는 호수로부터 꺼낼 수 없고, 호수를 샘과 시내로부터 꺼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르틴 루터도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는 거룩한 삼위일체의 계시가 나타나 있고 또 볼 수 있다. 피조물들의 자연은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미하고, 그것들의 형태는 아들의 자혜를 보여주고, 그것들의 유용성과 능력은 성령의 표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속에, 비록 가장 작은 풀잎이나 양귀비 씨 속에도 현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자연에서의 삼위일체 흔적을 말했다.

(4) 어거스틴의 관점
어거스틴은 그의 책 '삼위일체'의 제 8권 이후에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들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문제를 푸는데 있어 지켜야 할 중요한 전제와 원칙이 있음을 밝힌다. 그 중 흔적과 관련된 몇 가지 원칙을 발췌하여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 안에서 한 위격보다 세 위격이 더 크지 않다는 것을 이성에서 의해서 밝힌다. (2) 하나님이 어떻게 진리이신가를 이해하려면 모든 물체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3)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른 믿음으로 그를 알아야 한다. 어거스틴은 알지 못하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는 그의 '삼위일체' 15권 2절의 제목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항상 찾아야 한다. 삼위일체의 흔적을 피조물에서 찾는 것은 무익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에게 의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대상'과 '사랑'이라는 삼위일체인 것이다(제 8권). 또 사람의 마음을 분석해 보면 '마음'과 '마음이 그 자체를 아는 그 지식'과 '마음이 자체와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셋이 동등하며 한 본질이다(9권). 더 나아가서 "기억과 '이해력'과 '의지'는 더욱 명백한 삼위일체이다(제 10권). 그리고 "외면적 인간에게서도 '보이는 물체'와 '보

는 사람의 눈에 인상으로 박히는 그 형태와 '이들을 결부하는 의지의 목적'이 셋으로 되는 삼위일체를 볼 수 있다"(제 11권)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자아 안에 있는 세 가지 형태인 존재와 지식과 의욕(esse, nosse, velle)을 가지고 삼위일체적 흔적을 말한다. 나는 존재하며 그것을 알고 의욕을 가진다. 이 세 가지 안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의 삶이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을 발견한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마음과 지식과 사랑(mens, notitia, amor)도 삼위일체적 흔적이다. 마음이 그 자체를 알아야 하며, 자체를 알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식 행동에서 사랑을 중요시한 것은 플라톤이었으나, 어거스틴도 지식과 사랑을 불가분리(不可分離)의 것으로 생각한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요한 서신으로부터 이들 생각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다. 어거스틴은 이 사랑이아말로 삼위일체의 지식에 도달하는 길이라 볼 정도였다. 지식은 복음주의를 말할 때 거부되지 않는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기억과 지식, 의지(memoria, intelligentia, voluntas)도 "흔적"이다. 어거스틴은 지각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 보았다. 그 지각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한다는 것과 진리와 선을 알게 된다. 동시에 영혼은 그 자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게 되며 그 결과 자체도 알게 된다. 그것은 이성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이성은 주로 추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하여 지각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사유하는 기능을 말하는 인식과도 다르다. 오히려 그것은 사유의 근원이며, 따라서 사유적 지식을 넘어서 있다. 이와 같이 '인텔리겐치아'(intelligentia)는 무의식 중의 명상과 직관적 비전을 의미한다. 중세기 초에는 주관적인 종교적 의식의 현상에 관심들이 많았다. 인식, 고찰, 명상, 신앙, 이성, 명상 또는 신비주의의 '정화, 조명, 직관'이 삼위일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히스기야 왕(2)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 (이사야 38장 1절, 2절)
히스기야 왕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왕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선포에 히스기야 왕이 영적으로 대처하였

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세상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그는 낮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십오 년을 더하리라> (이사야서 38장 5절)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자신을 살리고 나라를 살렸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꼭 있어야 할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딪힌 벽을 앞에 두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보시고 통곡을 들으시고 이 땅과 이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통곡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만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하였습니다. <내가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십오 년을 더하리라> (이사야서 38장 5절)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자신을 살리고 나라를 살렸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꼭 있어야 할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딪힌 벽을 앞에 두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보시고 통곡을 들으시고 이 땅과 이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통곡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어르신·장애인 등 문화약자 1600명,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장벽없이 프로그램 참여한다

우리 사회 누구나 '공예'의 예술적 가치 누릴 수 있도록 '공예동행' 사업 추진

서울공예박물관(관장 김수정)은 우리 사회 누구나 장벽 없이 '공예'의 예술적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공예동행' 사업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리 사회 곳곳의 약자를 직접 찾아 펼치는 맞춤형 공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약자의 돌봄·치유·성장을 아우르겠다는 목표로, 올 한 해 총 1600여명의 약자가 서울공

예박물관과 '공예'로 동행하게 된다. 주요 사업으로 특수학급 어린이의 공예박물관 나들이를 돕는 ▲서울공예박물관 가는 날(26회차, 1280여명 대상) 중증 장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눈높이 맞춤형교육 ▲두근두근 처음 만나는 박물관(12회차, 1100여명 대상)을 마련했다. 또한 치매 노인의 오감을 공예로 깨워 치매를 늦추고 행복을 키우는 ▲오감으로 만나는 공예 프로그램(20회차, 240여명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자폐스펙트럼·공황장애·은둔 청소년(시범운영 예정)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공예동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 먼저 서울공예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특수학급 어린이만을 위한 관람일인(예를 들어, 26회차, 1280여명 대상)을 정기 운영한다. 지난해 둘째, 넷째 화요일(월 2회)로 시작했던 특수학급 관람일을 2024년 매주 화요일(월 4~5회)로 확대한다. 올해는 일천여명의 특수학급 어린이들이 공예 창작 활동을 통해 나만의 창의력을 드러내는 특별한 시간을 누리게 될 예정이다. <두근 두근 처음 만나는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은 거동의 불편함이나 교통

의 불편함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박물관 방문이 어려운 특수학급을 서울공예박물관이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교육을 펼치는 사업이다. 서울공예박물관이 개관한 2021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부터 지속해서 운영해 총 213명의 학생들에게 '공예'의 만남을 선사했다. 올해는 4월부터 6월까지 6개의 학급을 방문할 예정이다. 공예품 제작에는 섬세한 손의 활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소근육 운동은 노인들의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강화를 돕는다. 서울공예박물관의 <오감으로 만나는 공예>는 서울 지역 치매센터의 경도성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공예 체험 교육이다. 오감을 사용하여 공예품을 만드는 과정은 신체와 정신을 깨우고 마음을 치유한다. 2024년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10곳의 치매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공예박물관은 오늘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폐스펙트럼, 공황장애, 은둔청소년 등 사회 곳곳의 약자를 발굴하여 '공예'로 다가가는 <공예동행> 프로그램을 기획중이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공예가 지닌 가치를 가까이에서 알리고, 공예를 통한 정서적 치유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지속가능한 공예 동행'을 위한 신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연내 시범운영까지 마칠 계획이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은 "서울공예박물관의 '공예동행'은 박물관의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시민 삶에 가까이 기여할 수 있는 '문화복지' 사업의 일환이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문화약자 누구나 장벽 없이 공예의 가치를 누리고 예술을 통한 정서적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우리 기자

경기도, 학생·정보소외계층 4만 명 AI 등 소프트웨어 교육

방문 교육, 센터 교육으로 저변 확대

경기도가 이달부터 도내 초·중·고, 정보 소외계층 4만명에게 로봇 코딩과 인공지능(AI) 등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지원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SW) 미래교육 사업'은 도가 직접 양성한 강사진인 '소프트웨어 미래교육'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교육, 도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인 '미래교육 센터'(수원, 의정부)를 활용하는 센터 교육으로 이뤄졌다.

방문 교육은 학교 및 방문을 희망하는 기관별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해 기관, 학생들의 희망 수요에 따라 강사진이 로봇코딩, 사물인터넷 기초, 인공지능 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 교육은 수원 센터와 의정부 센터에서 상시 운영한다. 드론, 인공지능, 자율주행 교육 등 센터 안에서 교육 후 가상현실(VR),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도 마련됐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말 가족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방문 교육 신청은 도내 학교면 모두 가능하며, 경기 소프트웨어 미래교육 누리집(gg.sweduhub.or.kr)에 공고된 양식에 따라 작성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소프트웨어 미래교육 사업이 도내 소프트웨어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더 많은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우리 기자

우리 동네 치안정책, 내 손으로 서울시, '시민참여단' 모집한다

지역 치안 개선사항 발굴, 자치경찰 정책 제안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오는 19일까지 신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이 직접 우리 동네 치안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한 '시민정책자문단'에서 참여 대상을 일반 시민으로 넓혀 운영하는 것이다. 참여단으로 선발되면 우리동네 치안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자치경찰 정책 제안, 자치경찰 홍보활동 등을 하게 된다. 제안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지역 치

안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수 정책을 제안한 참여자에게는 사례 홍보와 함께 표창을 수여한다. 모집 분야는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및 지역경비 등으로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참여 동기와 관심분야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치경찰 분야(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관심과 활동 열의를 심사하고, 연령·성별·거주지역·참여경험 등을 고려해 최종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이달부터 2026년 4월까지 2년 간이다. 김학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시민참여단'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다은 기자

'노인성 잠꼬대' 환자 뇌파 분석했더니... "치매발병 예측"

서울대·강동경희대병원 연구팀 공동으로 학습지 게재 신경퇴행성질환 예측 뇌파 기반 머신러닝 모델 설계

렘수면행동장애 환자 뇌파를 이용해 치매와 파킨슨병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예측력을 검증한 국내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서울대병원 신경과 정기영·김한준 교수 및 강동경희대병원 변정익 교수 공동연구팀은 렘수면행동장애 환자의 뇌파를 활용해 신경퇴행성질환 발병 시기와

유형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노인성 잠꼬대라도 불리는 렘수면행동장애는 꿈속의 행동이 현실로 표출되면서 자는 동안 소리를 지르거나 몸부림치는 행동이 나타나는 수면장애다. 매년 렘수면행동장애 환자의 6%는 치매, 파킨슨병 등 신경퇴행성질환으로 진행된다고 알려

졌는데 언제, 어떤 유형으로 발병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웠다. 연구팀은 먼저 서울대병원에서 수면다원검사를 받은 렘수면장애 환자 233명을 최대 9년간 추적 관찰해 신경퇴행성질환 발병군과 미발병군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뇌파 특성을 비교분석했다. 이후 신경퇴행성질환 발병과 연관된 뇌파를 사용하여 첫 신경퇴행성질환 발병까지 걸린 시간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설계했다. 테스트 결과, 예측 성능을 나타내는 IBS(낮을수록 우수)


와 C-index(높을수록 우수) 수치는 각각 0.113, 0.721로 우수했다. 추가로 연구팀은 발병군의 뇌파만 분석하여 렘수면행동장애가 '치매인지기능 이상' 또는 '파킨슨병(운동기능 이상)' 중 어느 유형으로 진행할지 분류하는 머신러닝 모델도 설계했다. 그 결과, 예측 성능을 나타내는 AUROC(곡선아래면적) 수치는 0.901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퇴행성질환 발병 시기 및 유형 예측 머신러닝 모델은 공통적으로 '뇌파 둔화' 관련된 특성의 중요성이 높았다. 뇌파

는 저주파(델타파, 세타파)가 증가하거나 고주파(감마파, 베타파)가 감소할 경우 둔화된다. 신경퇴행성질환 발병군은 미발병군보다 뇌파가 둔화되었고, 발병군 중에서는 치매가 파킨슨병보다 뇌파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뇌파검사로 확인된 느린 뇌파 양상은 신경퇴행의 시작을 의미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 연구 결과는 대규모 코호트에서 뇌파를 활용해 예측하기 어려웠던 렘수면

장애에 환자의 예측을 일찍이 파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의미가 크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정기영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개발된 신경퇴행성질환 예측 모델을 활용하면 의료진은 렘수면행동장애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 선별하고, 환자는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국제학술지 '수면(SLEEP)' 최근호에 게재됐다. 이우리 기자

성명서, 칼럼, 논평 등 언론에 게재된 송암 권태진 목사의 글 모음집

대한민국 현대사 30년을 정리한 '역사 교과서'이자 '역사 지침서'



권태진 지음 | 170x240mm(양장)
400쪽 | 33,000원 | 성빛출판사
2023년 10월 15일 발간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최신간 NEW

저자 : 송암(松巖) 권태진

저자는 1978년 10월 15일 천막 하나로 교회를 세운 군포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설도들과 신앙한 가족이 된 그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어비목회라 불렀고 끝없는 사랑의 돌봄을 어비목회라 칭했다. 그는 한국 교회의 본질 회복과 연합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섬김으로 밋어지는 목회자이다. 예장 합신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등 총회와 연합기구의 수장으로서 지역, 교단, 교파를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되는 운동을 계속해왔고 일남전(영호부대) 참전용사로서 피 끓는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송암'이란 호를 가진 시인이기도 하다. 1994년 문예사조들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국제PEN회원, 한국문인협회원으로서 열여덟 권의 시집, 열두 권의 설교집, 열세 권의 에세이 등 총 44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한국전송가개발원의 이사장으로서 찬송 작사가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희망'임을 삶으로 전하며 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D. MIN.),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명예철학박사(Ph.D.),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사단법인 성민원의 이사장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96회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30대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89대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건축/인테리어/리모델링
하주디자인&건축
최윤곤(왜관제일교회 집사)

Tel. 054-973-0153
Mobile. 010-4676-2314
E-mail. sja7778@naver.com



복층 농막주택, 왜관 온암 재가노인센터, 대구 서재 어린이 수영장, 대구 상가 4층건물 리모델링, 약목제일교회 리모델링, 전원주택, 태전동 주택 리모델링, 포항 카페 인테리어, 대구 신성교회 리모델링

(이재흔 목사의 한국교회 살리기)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향한 구원의 복음으로 그 능력이 구속사다. 택하신 은총을 입어도 구원은 복음에 순종해야 얻는 전제조건이 있는 명령이다. 말씀이 믿어져 따지지 않고 따르는 것이 복음 순종이고 구속사의 능력이며,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은 불순종일 뿐 자유도 아무것도 아니다.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은 문자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언약 이행의 능력을 보게 하고, 자기 생각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뜻을 듣고 보게 하며, 멸망의 자리에 있는 자는 주의 영광 앞으로 나오게 하는 구주 예수의 선물이다. 복음이 공의대로 들리고 보이고 믿어져 따르게 하는 말씀의 깊은 샘이다. 구속사의 공의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회개의 능력으로 학문일 수 없고 또 학문에 가두게 할 수도 없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다. 한국교회 앞에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미혹하는 종교의 넓은 길과, 검소와 감사로 구주 예수 따라가는 신앙의 좁은 길이 있다. 복음이 들리고 보여 믿어지게 하는 생명을 듣고 소유하고 흐르게 하기 바랍니다.

강사 약력
생명수기도원 교회 담임(현)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장(현).
제 1 예수복음부흥단 대표.
총회부흥사회.
홍신대학원 목회학 석사.

강사 이재흔 목사.
소 :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4길32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 생명수기도원.
일 시 : 3~6, 9~12월 첫 주 월(오후 2시)~수(오후 5시) (숙식 가능).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전 화 : 010-5432-7951.
(선교계좌, 농협 302 0472 2140 31 이재흔)

2024년 4월 복지교회 POWER UP!
교회복지세미나 (무료)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레위기 21장 17절~21절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아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는즉 나아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_일시장소 **4월 18일(목), 20(토) 11:00~14:30**
안양복지교회 (위치: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61번길 30)

_모집인원 **요일별 선착순 30명**

_주 제 1.장애와 관련된 성경 용어 수정 및 이해
1.교회와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_강 사 **조상원 목사** 교회복지연구원설립자
-The Christian Welfare Campus of Harvest Bible University 학장역임
-주요저서: 교회복지이해, 장애와 관련된 성경용어 수정 및 이해, 다시 읽는 성경(신약편), 교회와 장애인복지

등록 | 홈페이지 등록 www.cws95.net
문의 | 문자등록 010-9643-6356, 점심식사 제공

 **한국교회복지사회**

획기적인 글로벌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

기/승/전/치킨집 or 커피숍!?
국내 레드오션 NO!
글로벌 비즈니스가 해답이다

세계1위가 될 사업도, 인류의 진보를 위한 계획도, **예산이 없다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아이템은 있으나 예산이 없는 저를 도와주시면 예산은 갖고 계시나 아이템이 없는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2025년 사업완성
국민은행 975901-00-026853
헬프사람넷 조현철
한구좌1억 8명 제한

*투자진행시: 변호사 공증 및 10%배당 서류전달 (단계별 수익 창출과정 일목요연 프로세스 제공함)

전화: 010-9897-2003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부흥회 특징]
불같은 찬양
생수같은 말씀
강력한 축사
우울증해결

강사 **장대수 목사**
시흥시인의 교회 담임장
대한기독교부흥사회 대표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성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특 징]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made in NORWAY

그냥 오메가3가 아닙니다!
생체이용율이 높은 rTG형태 노르웨이 직수입 하프물개 오메가3

3중 기능성
건강 기능식품

원활한 혈액순환!
혈행건강과 뼈건강을 동시에!
항산화 건강까지

하루 2캡슐
고품질 노르웨이산
하프물개 오메가3



최초판매기념

 **Sale 57%**

1박스(120캡슐) x 3박스
지금 주문하시면 선물용 쇼핑백 무료 증정!

정상이 **360,000 원**
할인가 **155,000 원** ←

우체국 107045-02-188054
농협 301-0336-3023-11
예금주:김종덕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 : 010-5775-2671

신앙생활 첫 단계

신간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생활 첫 단계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18가지 주제는 죄, 하나님의 사랑, 회개, 믿음, 거듭남,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인의 생활, 성령, 성경,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의 신분, 승리의 생활, 헌신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상급이다. 저자 김만홍 목사(은혜샘침례교회 담임)는 18가지 주제들을 소그룹에서 함께 공부하며 양육 교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집필했다.

저자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다.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 사탄이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 자신이 주인이 되도록 유혹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되어서 살도록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우주의 중심이 되어 자기 운명의 주관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불순종했다. 하나님에 대해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의 시간, 자기의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가려고 불순종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의 근원은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죄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죄 없는 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다.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와 심판과 죽음을 대신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 지구상에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 자기 자신의 몸에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질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은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분이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딤후 1:10)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임하셨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미쁘다'라는 말은 '믿음직하다, 아름답다, 확실하다, 신빙성 있다'라는 뜻이다. 그러면 어떤 말이 그렇게 믿음직하고, 확실하고, 신빙성이 있을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말이다"고 했다.

끝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자아가 깨어져야 한다. 진정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자기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자아가 깨어진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 안에 오셔서 살아 가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재하시면서 내면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이 성숙한 삶의 비결이다"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4월, 작가들의 말말말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가족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가족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가족이 역사 속에 출현하도록 적용하십니다. 가족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는 것입니다. 단지 출석하는 단체가 아니라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사 공동체입니다. 새 아담과 연합된 운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새 가족입니다. 혈통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혈로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분 아버지를 모십니다. 한 분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성령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교제하십니다.

권기현 '교회, 새 가족'



"교회 건축은 목사가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1990년 평택의 어느 교회 사모님께서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시며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건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가 이 문장 한마디에 담긴 것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어느 교회든 교회 건축 과정에는 기막힌 사연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남기고 싶은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 건축은 힘은 없지만 특별히 자랑할 일도 아니고 기록으로 남겨 기념할 만한 특별한 일도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대학 교회 건축 과정을 글로 남기려고 하는 것은 이 기록을 읽는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아름다운 헌신을 하도록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학의 젊은 영혼들을 사랑하여 캠퍼스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작으나마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재훈 '평안에 판 우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그가 인간의 생명을 새롭게 하고 지지하시겠다는 전 인류에게 하신 약속이다. 홍수의 바다 위에 표류하였던 노아의 방주는 장차 일할 구원의 표시였으며, 죄로 말미암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이룰 것이다. 방주 속에 각종의 짐승들이 포함된 것을 미루어 볼 때, 노아의 방주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조짐을 알 수 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을 중보하는 지도자였다. 그러나 그는 힘을 잃어갔다. 그 힘을 잃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면서 시작되었다.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는 어떤 때는 자신을 지탱해주는 힘이었고, 앞으로 밀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하늘을 향해 들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다. 십자가의 하나님은 삶의 의지 속에서 굶이 굶이 함께 자란 죽음의 모순의 힘을 받아들여, 구원으로 가득한 삶(生)의 용기를 북돋기 위한 하나님의 비참한 행위이다. 고난과 죽임과 죽음의 아픔이 질게 드리운 거지되고 모순된 삶의 세계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물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밑에서 드러나며 체험되고 밝혀진다. 그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용서하는 사랑"이며, 또 하나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이길 것이라는 "아버지에 대한 그지없는 신뢰"다.

김윤환 외 4명 '하나님이 사용하신 10가지 도구'

복음의 부요함을 과시하라

신간 '진정한 플렉스'

언젠가부터 소셜 미디어에는 값비싼 레스토랑에 가거나, 명품을 산 뒤 과시하듯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그러면서 꼭 이런 말을 하곤 한다. "오늘 나는 00으로 플렉스했다!" 과한 소비를 누리고 자랑하면서 타인이 자신에게 보내는 부러운 시선을 즐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이처럼 지금은 너도나도 플렉스하고 싶어 언덕 난 시대다. 플렉스(flex)라는 단어는 원래 '구부리다', '몸을 풀다'라는 뜻이었지만, 명품으로 휘감고 랩을 하는 미국 힙합 문화에서 '과시하다', '뽐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이 단어가 한국 문화에도 고스란히 스며들었다.

이런 시대 흐름과 유행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남들이 누리는 것을 나는 소유하지 못했



다는 열패감에 시달리며 불행하게 살아야 할까?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다 보면 '복음' 하나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고 '복음에 내 인생 전체를 맡길 만큼 복음이 그리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은 게 현대인들의 삶이다.

신간 '진정한 플렉스'의 저자 신동재 목사(원주중부교회 부목사)는 이런 현실에서 세상의 화려함과 견줄 수 없는, 결코 어떤 것도 흉내 낼 수 없는 '복음의 가치와 매력'을 말하고 있다.

저자는 책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주인공으로 태어난다. 축와 박수, 온갖 애정과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 말이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간 받았던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보통의 청년, 장년이 된다. 이것이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현실이다. 당연한 수순이지만 씩 윤패하지는 않다. 주인공의 자리에서 밀려나니 감출 수 없는 쓸쓸함이 밀려온다. 그러나 여기서 쉽게 포기할 우리가 아니다. 마음 한구석에 '내가 언젠간 다시 주목 받으리라'는 야심을 은근슬쩍 품곤 한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사람과는 달리 주목받기를 거부하고 자

신을 낮춰 오하려 다른 이를 드러낸 자가 있다.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사가 선지자가 예언한 '외치는 자로서,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한 선지자다. 세례 요한은 신약과 구약 사이의 암흑기를 뚫고 등장한 자다. 심지어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훌륭하고 카리스마도 있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이렇게 약 400명의 긴 침묵을 깬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이러한 시대에 요한의 태도는 우리에게 도전한다. 여전히 주인공의 자리에 미련을 두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면 조연의 자리는 실패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네, 스타가 되고 싶지 않은가?'라고 물어 오며 내 안의 각종 기질을 부추길 것이다. 그 삶이 흥한 삶이라고 거짓을 속삭일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네, 나의 조연이 되어 주지 않겠나?'라고 하시며, 성도와 제자라는 진짜 흥하는 길을 제시하실 것이다. 누구의 명함을 탐색 잡을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 몫이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불평 대신 명료한 사고가 필요하다"... '클리어 씽킹'



우리는 종종 세상의 피드백에 맞서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려고 한다. 그러나 저자는 세상을 바꿀 힘이 없다면 유일한 선택지는 불평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불평은 생산적이지 않으며 현실과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고 말한다.

저자에 따르면 불평을 멈추고 '명료한 사고', 즉 '클리어 씽킹'을 해야 한다. 클리어 씽킹은 누구에게도 가르쳐지지 않은 결정적 기술로, 성공을 꿈꾸는 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이다.

저자는 타인의 시선이나 위계질서 의식에 차선책을 선택하는 대신, 잠시 멈춰 생각할 공간을 만들고 명료하게 사고

할 것을 조언한다.

이를 위해 신경과학, 행동경제학, 심리학 등 분야의 논문과 과학적 근거를 활용해 실패를 반복하는 이들의 습관 원인을 분석하고, 무의식적 반응을 끊는 방법도 제시한다.

요컨대 저자는 불평 대신 명료한 사고를 통해 현실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래저기 자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진적으로 받아들이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제가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양천내산교회)

크리스천투데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왜 인생이 헛된가(2)

매일복사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 주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면 병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기 때문에 지칩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슬프고, 외롭기도 합니다. 낮은 일하라고 주셨고, 밤은 잠을 자라고 주

셨습니다. 6일은 세상의 일을 했다면, 하루는 하나님과 사귀며 쉬는 안이라고 주셨습니다. 당장 이것을 거슬러 살아보십시오.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

기뻐하십니까. 세상 것은 아무리 큰 눈으로 많은 것을 보아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상 소리를 듣는 귀를 아무리 크게 키워서 들어 보십시오. 들어도, 들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 27:20 "멸망의 구렁이가 만

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눈과 귀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으려고 노력합니까? 어떤 새로운 것에 마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외에 신성한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헛된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43:19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

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신답니다. 이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 마음에 새 길을 내시겠습니다. 사막처럼 메마른 우리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새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살고 있는 바람이 나 물이나 태양을 내 것이라고 고집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까? 하나님 것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당시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에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도 우리의 다음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과 동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우려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으로 채웁시다. 그러므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꼭 필요한 유익한 인생이 되게 합시다.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 서을 때 후회가 없는 삶이 되게 합시다. 온빛교회 제공

나의 사랑하는 책

사무엘상 1장 강해

1-8절 한나의 고백

여명이 밝기 전이 가장 어두운 밤이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시기인 초기 왕정 시대의 시작은 불임의 한 여인에게서 시작합니다.

암울한 사사시대의 말미에 한 여인이 등장한다. 그 여인은 레위인 엘가나의 두 부인 중의 한 명이다. 불행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다.

사무엘서가 시작되면서 한 사람이 등장한다. 그 사람의 이름 엘가나. 성경은 그가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라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라 소개한다.

이들은 누구일까? 역대하 6장에서 레위인들이 소개되는데 그곳에 사무엘이 등장한다. 사무엘-엘가나-여로함-엘리엘-도아. 이들은 레위인이다. 즉 엘가나는 레위인이란 뜻이다.

역대상 6장 34절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라엘의 아들이요 엘라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레위인에게 두 명이 여인이라니 참으로 암울한 시기다. 하여튼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한다. 에브라임 사람이라 소개하지만 에브라임에 사는 사람이 지파가 아니다.

그에게 두 여인이 소개된다. 한 명은 한나이고, 다른 한 명은 브닌나이다. 브닌나를 첩으로 잘 못 알지만 히브리어는 두 명 다 본처라고 말한다.

문제는 브닌나는 자식이 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늘 시작은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우리는 결과만을 보고 천재라고 말하지만 그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친 과정을 망각한다. 한나의 시작도 그랬다.



한나가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엘리 신부에게 선물하는 모습 ©Wikimedia

성막에 실로에 있던 터라 매년마다 실로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하필 약당들이 있던 흡나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던 시기다. 불행은 혼자 오지 않고 친구를 데리고 오는 법이다. 흡나와 비느하스는 약당들이었다. 하나님의 제사를 얕잡아 보았다.

브닌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함을 알고 그녀를 격동시킨다. 마음을 충동질한다는 뜻이다. 동일한 표현들이 사단에 게 나타난 것을 보면 브닌나는 교묘하게 한나를 괴롭힌 것으로 보인다. 6절에서 '격분' 7절에서 '격분'이 반복된다.

하지만 엘가나는 항상 한나를 더 사랑하고 아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 아이를 잘 낳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브닌나다.

마치 아픔의 사랑을 빼앗으려는 레아와 라헬을 닮았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인들을 많은 수가 불임의 여인이었다. 사래(사라), 리브카, 롯(남편이 죽어), 그리고 한나까지. 엘리사를 공개 한 수넵 여인도 불임의 여성들이었다. 불임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함으로 이미 죽은 것과 같다. 하나님은 죽은 것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요한복음 9:2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가 자기 자기가 그의 부모나

요한복음 9: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심이라

9-18절 응답받는 한나
한나는 기도한다. 한나의 기도 내용에 주목해 보자.

11절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거레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거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나의 계획은 뭘까? 이유는 분명하다. 자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특히 브닌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한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것은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을 때, 한나는 하나님을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시고, 죽었던 자신의 태를 여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널리 알리고 싶은 것이다. 단지 그 이유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증명해 봐!'라고 조롱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는가. 하나님과 한나의 박적이 일어나고 있다. 과연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이를 허락 할까?

19-28절 사무엘의 출생과 봉헌
사무엘이 태어나자 한나는 그를 젖 먹인다. 그리고 성장하자 실로로 데려가 하나님께 드린다. 성경세계 제공

믿음의 열조들을 찾아서

야고보, 예수의 동생 James the brother of Jesus

예수의 가족관계
복음서들은 예수에게 형제가 몇 명 있었는지도 전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는 마리아와 신의 아들이지만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예수에게는 이부형제가 된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 살았으므로 예수의 형제란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낳은 자식들을 가리킨다고 본다.

즉 예수와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복음서에서 말하는 '형제는 더 넓은 '가족'이라는 의미이다. 형제들은 예수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를 그다지 높이 평가하지 않았었다(마태복음 13:55).

형제 중 하나인 야고보는 부활한 예수를 보고 나서 그리스도교의 지도자가 되었다(사도행전 12:17).

훗날 그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비유대인들에게 할례의 의무를 면제해 준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재했다.

사도행전은 야고보와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서로 존경하는 사이였다고 전한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는 것이다"는 구절로 유명하다. 진정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다.

안행일치를 강조하는 이 구절은 종교에만 아부하고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힐난하고 있다.

종교개혁의 지도자인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야고보서가 신앙이 아니라 선행에 의한 구원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멀리했다.

그러나 대다수 그리스도교도들은 야고보서를 존중하며, 신앙과 선행이 분리될 수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인다.

그리스도교도들은 야고보를 '공정한 야고보' 혹은 '주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부르며 사도 야고보와 구분한다.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사도가 있어 더욱 헷갈린다.)

이 야고보는 다른 사도 야고보에 비해 덜 중요하기 때문에 소(小)야고보라고 부른다)

야고보는 최근 그의 이름이 새겨진 유물이 발견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2002년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요셉의 아들, 예수의 동생'이라는 비문이 새겨진 납합함이 발견되었다.

야고보, 요셉, 예수는 모두 고대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지만 그 비문은 죽은 사람의 형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어 이채롭다.

납합함의 연대는 기원후 20-70년으로 추정된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63년에 이단으로 몰려 돌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했다.

만약 그 납합함에 든 것이 진짜 야고보의 유골이라면 예수가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유일한 고고학적 증거물일 것이다.

들녘 출판사 제공

식물로 못고치는 질병은 약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

홍천마를 잘 알면 질병이 두렵지 않다

질병과 건강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십니까?

홍천마 진액 골드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극찬한 천마

■ 천마의 종류
국내에 분포하는 천마는 크게 나누어 꽃대색이 적황색인 홍천마와 담황색인 정천마가 있다.

■ 천마의 효능과 신비
천마는 미네랄이 풍부하여 마른(麻木)이라 하여 마비가 되는 증상을 다스린다 하여 하늘(天) 마(木)의(木)를 더하여 천마(天麻)라 불리 왔으며 정통초(正風草)라 불리기도 한다. 정통초란 이름 그대로 바로 풍을 다스리는 풀이라는 뜻

천마는 난초과이며 여러 해 살이 풀로서 자연에 따라 번치는 있지만 자연산은 5월~6월에 마치 꽃대같이 색이 옅어지고 고 흰 꽃을 피우는데 꽃을 피울 때면 그 천마는 이미 속이 비어 가고 있는 중이다. 천마는 5월~6월에 색을 올리고 7월이면 그 색이 시들고 말라버리기 때문에 자연산 천마는 1개월 정도만 색을 볼 수 있기에 채취 기간이 짧아 식약 마 올라오는 시기가 최적인 채취기간이다.

이때 채취하지 않으면서 늦가을에 채취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늦가을에는 씨앗이 떨어져서 어려우므로 전문 약초꾼들은 그 장소를는 여가 바 부었다가 매달 씨를 뿌리 놓았다가 자연 메임을 보고 채취한다.

천마의 색에는 잎이 돌아나지 않고 꽃대처럼 옅어지고 작고 흰 꽃을 피우며 그 색도 푸른빛의 색과 분홍색의 홍천마가 있다. 뿌리가 성장했을 시에는 마치 고구마처럼 생겼으며 가로로 일정한 간격의 줄무늬를 나타낸다.

뿌리는 천마라 명칭하며, 줄기는 적전(赤前) 또는 정통초(正風草)라 부른다.

천마는 참나무 뿌리에 버섯처럼 균근에 의해 자라는 반 기생 식물이다.

'천마'는 뇌 질환 계통의 질병에 최고의 신약이며 특효약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고혈압, 당뇨, 시중독, 디스크, 백혈병과 각종 암, 발기부전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옛 문헌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자.

(동의보감)
모든 해(毒)와 어지러운 증세에 천마가 아니면 치료하기 어렵다.(非天麻不)
천마는 두통과 고혈압, 어지럼증에 특효약이라 할 만하다. 어지럼증은 한의학에서 '현훈'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간과 신장의 기운이 손상되어 간의 열이 위로 오르고 몸 안에 열과 열이 서로 충돌하거나 몸 속의 수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여 생긴다. 몸이 어지럽고 속이 멎스꺼우며 구토가 나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청각이 약해진다. 이럴 때에 천마를 사용한다.

천마는 건강의 열을 내리고 바람과 습기를 없애며 마음을 진정시킨다.

목회자분들께는 섬김과 봉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선물을 드립니다.

기존가격 (198,000원)에 제품은 기존(1x1=2박스) x 추가 1박스 총 3박스(180포)를 보내 드립니다.

홍천마진액골드는 특산물 3년산으로만 추출제조하여 제품이 아주 탁월합니다.

1SET 가격으로 3SET 드립니다!

1SET + 1SET + 1SET = 3SET
80m 60팩 80m 60팩 80m 60팩 80m 180팩

198,000 + 198,000 + 198,000 = 594,000

공급가격 = ₩198,000 (부가세 별도)

우울마진 확 줄여 소비자에게 돌려드리는 직거래마케팅

우울증, 어지럼증, 만성두통, 귀속의 잡소리 등 이것 저것 다해봐도 아무소용 없으신 분께 혈액순환에 탁월한 홍천마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www.hhma.co.kr
부산 연제구 거제동602-7
TEL:051)853-2678

080-080-2678

국민은행 116601-04-077942
예금주 : 이주영

안녕하세요!

홍천마를 생산하는 라파식품이 하나님의 은혜로 17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모두 고객님들의 기도와 성원덕분입니다. 라파식품은 부산 본사의 제조생산 공장을 신설 확장하고, 오직 국내 3년산 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저온 40시간 주 출제 공법으로 신제품 '홍천마진액골드'를 제조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종전 제품보다 몇 배나 훌륭한 품질의 '홍천마 진액골드'를 기존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그동안 홍천마(진액골드)를 복용하신 교역자님, 장로님, 성도님, 수많은 고객님들께서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사신다는 체험담과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복용하고 싶어도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교역자님과 장로님 성도들의 간정에 의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제품유통 비용을 모두 없애고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신소비자 마케팅으로써 1set(한 달분 60포)를 구입하시면 2set을 선물로 더 드려서 총 3set(3개월분 180포)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유료수 값이며 결과는 감탄의 찬사입니다.

특히 온빛복사님, 장로님께서는 최고의 예우를 하고자 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고도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식품법에 의하여 효능에 대하여 말할 수 없으니 아쉽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장로님,성도님,홍천마를 통하여 더욱 건강을 지키시고 혹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시다면 "홍천마"를 복용해 보십시오.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고 기쁘고 즐거운 체험을 하시길입니다. 사람은 혈액순환만 잘되면 무병장수한답니다. 식품으로써는 홍천마가 순환기에 최고의 건강식품 인니다. 어느 질병이든 믿고시고 복용해 보십시오. 놀라운 체험과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글 동의보감에 보시면 특히 각종 암 · 중풍 · 고혈압 · 당뇨 · 만성두통 · 우울증 · 순환기질환에 홍천마가 탁월하다고 극찬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라파식품은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성도님의 건강을 위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민교회(합동) 이현호 사무장

송태훈 칼럼 모세에게는 '내조의 여왕'이 있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아내 심보라



송태훈 목사

주전 15세기에 태어나 하나님 주신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현모양처로 살다간 모세의 아내 심보라(Zipporah)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직명 르우엘)의 일곱 딸 중 하나다(출 18:2-4). 성경 기자는 특별히 어떤 지면을 할애해 그녀의 삶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심보라는 단지 탁월한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를 조용히 뒤에서 내조한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을 뿐이다. 심보라는 그녀의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작은 새와 같은 삶을 평생 살았다. 남의 일에 괜스레 간섭을 하거나 개입하지도 않았다.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상큼한 기쁨과 소망을 듬뿍 안겨준, 산소 같은 여인이

었다. 그녀는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미디안 광야로 이방도주한 살인범, 모세와 만나 결혼했다. 당시 모세는 인생을 포기한, 비전이 전혀 없는 남자였다. 심보라는 영적인 깊은 눈을 가지고 있어 일곱 자매 중 유일하게 미래의 지도자 모세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건강하고 조용한 두 아들 게르솜과 엘라에셀을 슬하에 뒀다(출 2:21, 출 18:2-4). 두 아들은 평생 영도자 모세의 사역에 장애가 되지 않았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후계자가 되려는 사적 야망을 갖지 않았다. 지혜로운 여인 심보라의 신실한 가정교육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성경에서 특별하게 다룬 그녀의 삶은 아들 게르솜에게 직접 돌팔을 취해 할례를 실시한 것이다(출 4:24-26). 딸기나무 관목 숲에서 출애굽 혁명을 위한 사명을 여호와로부터 부여받고 이집트 황실로 들어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감싸서 죽이려 하신다. 모세가 아브라함 이래 이스라엘 민족의 법으로 내려온 아들에 대한

할례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명한 모세의 아내 심보라는 여호와 뜻을 곧바로 깨닫고 길가에서 차돌을 취해 돌팔을 만든 다음 신속하게 아들 게르솜의 양피를 베었다. 그것을 남편 모세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라고 외쳤다. 어린 아들의 양피를 베어 피를 흘린 다음 모세가 죄를 용서받고 자기의 남편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신앙고백이었다(출 4:24-26). 이것은 모세의 아내 심보라가 매우 센스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줬다. 주전 1446년 아브람 15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숙곳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심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친정인 있는 미디안으로 돌아갔다. 아마도 대장군 모세는 말이 없는 조용한 아내 심보라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외교사절로 비밀리에 임명해 미디안 족속에게 보냈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디안 지역을 관통해야 하는데, 준비된 유목민

들인 그들과의 무모한 전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심보라는 미디안 땅에 먼저 도착해 그녀의 아버지인 제사장 이드로를 통해 양 족속간 발발할 수 있는 전쟁을 막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말도 없이 조용하게 남편의 나라 이스라엘과 그녀의 조국 미디안 사이에 평화를 구축하는 중요한 다리를 놓았다. 모세가 그녀를 이스라엘의 전령으로 보낸 것은 앞서 있었던 에서 족속 아말렉과의 전투가 큰 교훈을 줬다. 평화의 사 람 모세는 이스라엘 군대와 사나운 아말렉이 전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갓 출애굽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민족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된 상태였다. 모세는 이민족들이 살고 있는 시나이 광야 등을 조용히 통과만 하면 됐다. 그러나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전쟁을 일으켰다. 그런데 미디안 족속들도 아말렉과 비슷한 유목 민족이었고, 용맹했다.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엄청난 국력손실이었다. 출애굽한지 2개월 후쯤 모세가 이끄

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나이 근처에 있는 미디안 지역 인근에 접근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직명 르우엘)가 심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본진을 직접 방문했다. 이드로는 모세의 인척이어서 사적인 방문의 성격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외교사절로 돌아간 심보라 사역의 직접적 실천으로서의 공적 방문이었다. 지도자 모세는 본진을 방문한 이드로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얼마나 큰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출 18:1). 산소같은 여인, 심보라의 조용한 외교적 능력으로 모세와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는 양국 간 '불가침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나아가 공동체의 행정에 많은 경험과 탁월한 능력을 지닌 장인 이드로를 통해 이스라엘의 통치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혁명이 일어났다. 모세 출로 이끄는 중앙 집권적 통치의 비효율적 구조를 심부장,

오십부장, 백부장 및 천부장 등을 세워 조직적으로 통치하는 지방분권 구조로 개혁했다. 심보라는 남편 모세가 이스라엘의 수장으로 통치하는데 평생을 조용한 반려자로 남았다. 장남 게르솜의 후손들을 단 지파를 리드하는 종교적 지도자, 즉 제사장 가문으로 만드는 데 크게 공헌했다(삿 18:30). 그녀가 죽은 후 모세는 구스 여자를 취하여 결혼했다. 요세푸스의 고사기에는 모세가 심보라가 죽은 후 에디오피아의 공주와 결혼했다고 적었다. 적극적으로 역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도 유익할 수 있다. 그러나 산소같은 여인, 심보라처럼 세상을 조용하고 여유있는 태도로 남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도 큰 매력에 있는 것 같다. 뒤에서 남을 돕고 바라보고 배려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산소같은 인생이 오늘 날에는 더욱 그리워진다. 부정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리더만 되려고 애쓰는 현 세태에 조용한 심보라의 내조는 우리들에게 신선한 강동을 주고 있다.

건강상식

깨끗하고 건강한 눈을 위한 보약, 비타민

아침에 깨어나서 잠을 자는 순간까지 쉴 틈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눈이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눈 건강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됐다. 각종 디지털 기기를 비롯해 건조하고 탁한 실내 환경, 과도한 조명, 스트레스 등 자극이 되는 요소들이 많아졌고, 봄이 되면서 황사나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들 역시 눈 건강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눈의 피로를 잘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인들의 경우 과도한 업무로 눈에 피로가 쌓이면 오후쯤 되었을 때 눈이 충혈되거나 건조한 때문에 뻑뻑해질 수 있다. 이럴 땐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쉬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까운 거리에서 장시간 컴퓨터를 했다면 실외로 나가 먼 곳을 바라보는 것도 눈의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된다.

'눈을 맑게 한다'는 이름을 가진 결명자는 그 이름처럼 눈이 침침할 때 도움이 되며, 간장과 비장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의 이상으로 나빠진 눈에



효과적이다.

눈 건강에 좋은 것으로는 비타민도 빼놓을 수 없다.

비타민 A는 망막의 시세포, 각막과 결막의 상피세포 등에 두루 작용하기 때문

에 눈의 비타민이라는 별칭까지 갖고 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지 않는 '야맹증'과 각막과 결막의 '건조증'이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평소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간, 당근, 시금치, 호박과 같은 야채류, 버터, 치즈 등의 유제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 B 역시 눈 건강에 중요한 성분이다. 비타민 B1은 신경계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시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비타민 B1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팥, 콩, 쌀, 견과류, 효모, 생굴, 돼지고기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채소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 B1 이외에 비타민 B2, B6, B12 역시 눈을 맑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소 챙겨 먹으면 도움이 된다. 비타민 B2가 부족하면 눈과 눈꺼풀이 따끔거리면서 충혈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 비타민 B2는 간, 우유, 치

즈, 달걀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 B6가 결핍되면 눈의 피로가 극심해지고 긴장되며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비타민 B6를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육류, 바나나, 해바라기씨, 감자, 시금치 등이 있다. 비타민 B12는 피를 만드는데 관여하기 때문에 결핍될 경우 시신경에 염증이 생기거나 망막에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 때문에 비타민 B12가 많이 함유된 포도와 오렌지, 파슬리 등을 꾸준히 섭취해주면 도움이 된다.

피부 미용에도 좋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며, 봄에는 춘곤증을 물리치는 데도 효과가 있는 비타민 C 역시 눈에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노안은 주로 비타민 C의 결핍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평소 건강하고 젊은 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먹는 것이 좋다. 또한 비타민 C는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비타민 C가 풍부한 감귤류와 딸기, 키위, 양배추, 양파 등을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비타민은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로 해소는 물론이고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한 것이 비타민이며 눈의 건강을 위해서도 비타민 섭취는 필요하다. 다만 비타민이 많이 함유된 식품의 경우 조리를 하

게 되면 비타민 성분이 쉽게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리하지 않고 먹는 것이 좋다. 김소현 한의학박사

은혜 한 장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 요한복음 17:17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TOP 100
YES 24 건강에세이 건강기타 / 네이버 책 베스트 도서 선정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능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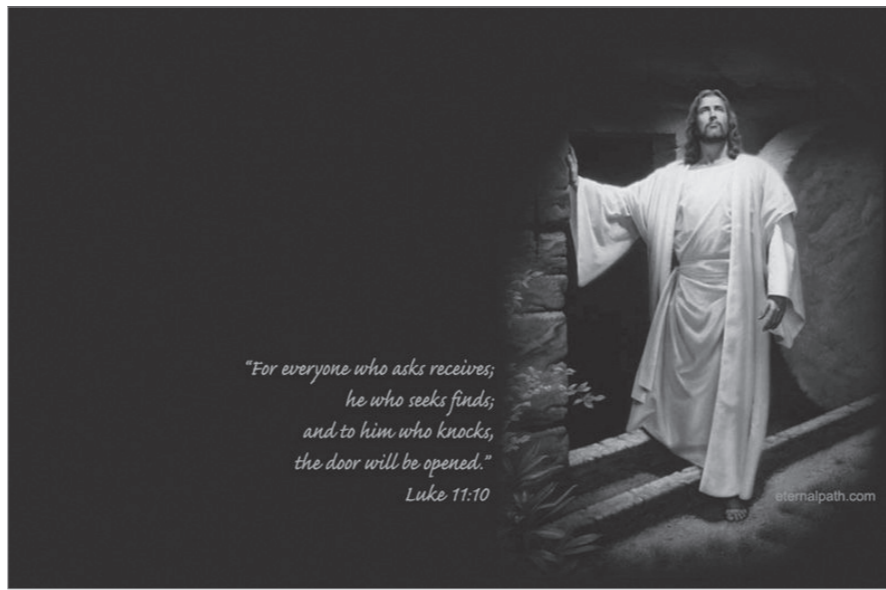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신앙과 가정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배고프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 가면 다행 일들을 예견이나 하듯이 모세를 통하여 주의사항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부터 이어지는 그 주의사항 중에 첫 번째에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여 어느 정도 먹고 살 것이 있고, 배불리 먹는 때가 오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놓고 보면 먹고 살만할 때에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감사하면서 그동안 살게 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이방신들에게 눈을 돌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측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사전에 예견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면 눈이 다

른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담이 바탄 아람에서 돌아올 때에 쌍둥이 형, 에서의 칼의 위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적으로 넘긴 아담은 세겔의 화려한 문화에 젖어서 평안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그의 하나 밖에 없는 딸이 세겔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강간을 당하는 위기를 만납니다. 다윗은 그의 궁정의 지봉을 한가로이 거닐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위기를 만납니다. 누구나 위기의 순간을 되돌아보면 영적인 감각이 무뎠거나 해이되어 있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다른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고플 때에는 어찌 해야 할까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배



제나갈 방법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웃을 수 있는 기회이지만, 이렇게도 저렇게

도 할 수 없이 영긴 삶으로 들어가 '배고파질' 때가 온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떠난다고 염려되는데, 배가 고프면 반대로 하나님을 찾을까요? 더 가까이 갈까요? 제 경험으로는 배고파서 하나님께 더 매달렸던 적이 있었기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가만히 요즘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굶주림이 느껴지고, 없으면 죽겠다는 위기의식이 있을 때에 사람이 간절해지는 법인데 그렇지 않은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를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신 하나님은 배가 고프는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눈이 떠지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아름다운교회 제공

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절박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 극한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안일함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또 다른 경우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기 도움을 손길을 기웃거리는데 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방법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를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신 하나님은 배가 고프는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눈이 떠지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아름다운교회 제공

은혜의 샘물

하나님의 용서의 유형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치 아니하라” (사 43:25)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죄 사함 곧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는 개인에 따라 형태색색일 것이다. 진리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지심으로 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허술한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항상 오락가락한다. 이 일은 비방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야기이다. 서울 아이들 수업과 시골아이들의 수업 내용의 차이라고 하면 좋을까? 얼마 전에 일본에서 방문했던 한 여 전도사님이 내게 전화를 해서 한국에서 들어와서 방송 설교를 통해 큰 은혜를 많이 받고 힘을 많이 얻었다고 말을 했다. 이분이 일본에 도착한 다음에 다시 전화를 해서는 '내가 까닥했으면 미혹에 빠질 뻔 했습니다' 고 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각자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란다. 아무튼 들은 말씀에 의해 죄 사함의 확신이 다름은 확실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이름을 위해 용서하신다. 우리의 죄와 그 죄업과 오염된 책

도에 상관없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아담 안에 있던 자연적인 죄인이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롬 8:1) 영원히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렘 31:34, 히 8:12) 영원한 용서이다. 그러나 성령이 강하게 불들어 주시면 이에 대한 확신이 들지만 생활 속에서 다시 생각이 오염이 되고나면 또 흔들린다. 그래서 옷을 세탁하듯이 반복적인 자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영원한 용서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 같은 뿐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구름이 끼었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용서하신 사실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입은 옷을 빨아 입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 같으나 눈과 같이 진홍 같으나 양털같이 씻어주마' (사 1:18) 그리고 자백함으로 죄와 불의(생각)를 깨끗이 세탁해 주신다(요일 1:9) 진리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격과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복이다. 참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시스템은 기상천외하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다 그 입은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계 22:14) 그러나 그 때 마다 새 옷을 한 벌씩 갈아입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아입은 옷(갈 3:27)을 그의 보혈로 빨아 입는 것이다(요일 1:7)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의 진리를 알고 그 길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분의 보혈이 자동세탁기와 같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당황하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과 교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 믿으므로 시간이나 물질을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누가 맡기겠는가? 돈만 주면 오락실에 가는 아들이지만 재산을 맡기지 못할 수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미덥지 못해서 물질을 맡기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신용을 쌓듯이 돈의 씬씀이에 대한 신용을 쌓아 갈 필요가 있다. 이젠 시간도 마찬가지로 건강도 한 그렇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이런 것들이 망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제 것인 양 잘 못 사용한 결과이다. 만약 약 물질에 대한 복을 받고 싶은 분이 있으면 자신의 소비 성향을 먼저 체크해 보라.
마지막으로 징계(히 12)를 받으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밧세바를 취한 다윗이나 인구조사를 강행한 다윗을 하나님은 처벌하셨다. 그러나 그 일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하다. 그 분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이루신 일이다. 그러나 날마다 오염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백하고 그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이미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장치를 성경 속에 미리 마련해 주셨다. 언제나 자유롭게 사용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신용을 잃은 사람에게 물질을 사거나 건강이나 건강이 제한되기도 한다. 깊이 생각하고 이에 대한 신용을 회복해야 한다.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처리를 당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품에 더욱 깊이 안기는 친권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쓰리엘월드미션 제공

향유욕망

자기 운명 개척 십계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를 써서 한국에 많이 알려진 미국의 헌터 새뮤얼 풀럼은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열 가지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지혜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1. 작은 일에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십시오.
2.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3. 최고의 인생은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사는 데서 얻을 수 있습니다.
4.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지혜가 참다운 지혜입니다.
5. 자신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 하지만 독단과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6. 지식은 풍부하게, 행동은 겸손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 남에 대한 작고 따뜻한 배려를 잊지 마십시오.
8. 좋은 친구는 자신을 보여주는 또 다른 거울입니다.
9. 상대로부터 신뢰받는 인간 관계를 맺으십시오.
10.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강인한 육체를 가꾸십시오.
기독교 신앙이라면 여기에 기도하기와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도록 노력하되 한다면 신앙인으로서도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성취하려 여깁니다.
산마루서신 제공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찬양으로 승리를 선포하라” I (역대하 20장 13~30절)



이준원 목사

1. 찬양 가운데 깊은 임재로 들어가기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고전 14:15)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마음이 합해서 전인격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찬양은 안 한다면, 찬양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한다면, 찬양은 안 합니다. 찬양과 기도는 서로 끌어주고 열어주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로 찬양에 불을 붙입니다.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게 해줍니다. 기도 할 때도 성령님이 임재하시지만, 특히 찬양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하나

님의 임재가 찬양 가운데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기분 좋을 때 읊은 단순한 시이거나, 기분 나쁘고 한탄하는 시가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간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쳐진 찬양이며 기도입니다.

찬양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과의 깊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주님께 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시는 상태, 주님과 나만의 조용한 만남으로 들어가는 상태가 바로 경배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연결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라” 하고 제 3자가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배” 또는 “예배”는 바로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 자신을 드리면서 나아가

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왔다 가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에 들어와 백성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대제사장이 불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거나 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섬깁니다. 점점 더 깊이 들어가다 다시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께 나 자신을 완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찬양입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 중 하나는 찬양이 터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입술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찬양’이라고 하면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물론 노래는 찬양의 가장 주된 방법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찬송’은 찬양의 여러 가지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말로 찬양할 수 있고, 연주로 찬양할 수 있고, 몸짓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body worship). 그런데 찬송은 간중예 음악을 입힌 것

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노래입니다. 찬양은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릅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 없이 진정한 찬양을 부를 수 없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척도는 찬양에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힘 있고 따뜻한 찬양이 흘러나오는 사람의 신앙은 건강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찬양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찬양이 나오는 본문들을 보면 영적인 승리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갈라진 홍해 바닷길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승리의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여호와와 나의 힘이요 노

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 15:1-2)

그러나 홍해를 건너면서 승리의 찬양을 불렀던 그들이 광야의 시련을 만나자마자 그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을 연료로 사용하며 우리의 인생을 침체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불평과 원망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말씀의 삶>에서 공부한 것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은 원인이 바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1세대 군대의 숫자가 모두 60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두 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60만 3천 5백 48명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힘들수록 찬양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떠나보내면, 우리의 입으로 했던 그 찬양의 언어를 하나님이 연료로 사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견져주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찬양할 수 없고, 찬양하면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원하십니다.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으면 환경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안 힘든 게 아닙니다. 힘든데 불평과 원망 대신 찬양하고 있으면 환경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찬양으로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비밀을 안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찬양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호에서 이어집니다.>
클렘버스한인장로교회 이준원 목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2 (롬 12:1-2)

(1장에 이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진액을 공급받아 절로 과실을 맺듯이,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주장하시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속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된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래 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마가 선지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두루 생각하던 중에 이같이 말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 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아들들,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미 6)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와 같은 과격적인 제물을 바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말하기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 6:8)고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많은 제물을 바쳤더라도, 십자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듯이 자기의 만아들들 번제로 바칠지라도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같은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많은 제물이나 어떤 과격적인 희

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같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수양보다 더 귀한 제사로 받으십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 선지자 당시에 유대 사회는 매우 불의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였고, 사회 정의가 실종되고, 관리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들을 두둔하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게을리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보란 듯이 성대하게 절기를 지키고 때마다 많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1)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2) 너희가 내 앞에 보여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하여

가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화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4)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자기에 곤비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많은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인정은 거역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배워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부터 열까지 자기의 뜻대로 하신 적이 없으며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당하는 것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서 십자가를 면하고 싶은 예수님 자신의 뜻을 완전히 접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으며, 가까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합당한 상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

히 순종하신 결과, 저와 성도님들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게 되므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시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좋아하고 기쁨을 얻는 것을 우선시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성도님들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평강과 기쁨과 풍성한 생명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트리이스 제일교회 주일설교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무주군, 4·1무주만세운동 105주년 맞아 기념식 개최

무주군은 지난 1일 4.1무주만세운동 105주년을 맞아 무주읍 반딧불시장 원형광장에서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기독교연합회(회장 조인희 진도교회 목사)가 주관한 가운데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민 등 1백여 명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독립선언서 낭독'과 '나라와 민족, 무주군을 위한 기도',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시간을 함께하며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무주 장날 봉기했던 4.1 무주만세운동을 기렸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4.1 무주만세운동은 내 나라, 내 고장을 지키



4·1무주만세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모습. ©무주군

고자 했던 우리 군민의 저력이었다"라며 "105년 전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 앞으로 이어 '지금 이곳을 짝 채운 열기와 합성백 년, 또 천 년을 이어 후손대에 전해지 이 자연특별시 무주를 키우는 동력이다

무주방문의 해 성공을, 그리고 군민 서로를 향한 위로와 응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라고 덧붙였다.

4.1 무주만세운동은 1919년 3.1 운동에 대한 소식과 독립선언문이 무주지역에 전해지면서 그해 무주 장날(4월 1일) 일어났으며, 이를 계기로 총 7회에 걸쳐 3,500여 명이 참여한 만세운동이 벌어졌다.

4.1 무주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은 전일봉 선생(1896~1950)으로 무주읍 자남공원에 그의 동상이 자리하고 있다. 또 당시 전일봉 선생이 '삼승학교' 간판을 걸고 학생들(무주, 진안, 장수지역)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던 여울교회는 적삼면에 있다. 이나라 기자

함안군, 현충시설 손양원기념관 방문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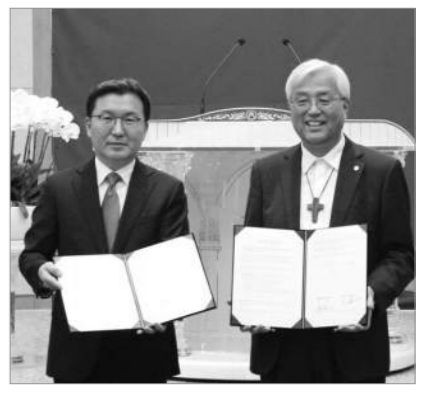
나라사랑의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기로 협의

함안군은 손양원기념관 방문 활성화를 위해 최근 함안제일교회에서 (사)산돌손양원기념사업회(회장 이성구 박사)와 함안군기독교연합회(회장 정진경 목사)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산돌손양원기념사업회는 현충시설인 손양원기념관 수탁기관으로 이번 협약은 군내 기독교연합회 소속교회 성도들의 손양원 기념관 방문을 활성화하고, 손양원기념관을 교회학교 학생들과 청소년들의 나라사랑의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기로 협의했다.

이로 인해 기념관에 필요한 손양원 목사 유물과 자료 등을 제공받는 것과 전국에 손양원 기념관을 널리 홍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양원 목사는 1902년 경남 함안에서 출생해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인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등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산 인물이자, 일제의 신사



협약식을 마치고. ©함안군

참배를 거부하다 옥고를 치른 애국지사이다. 이러한 손 목사의 숭고한 박애 정신과 애국 혼을 기리기 위해 함안군은 (사)산돌손양원기념사업회와 함께 3656㎡ 부지에 복원 생가 1동과 전시장, 기록보관실, 영상실 등을 갖춘 기념관을 2015년 건립했다.

함안군 칠원읍에 소재하는 손양원기념관은 애국지사 손양원목사의 일대기 및 함안의 독립운동을 함께 관람할 수 있으며, 손 목사의 숭고한 나라사랑과 이웃사랑을 배우는 장소로 의미가 깊다. 이나라 기자

서울신대, '크리스티안 바르텐 오르간 리사이틀' 연다

오는 11일 성결인의 집 대강당서 진행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 교회음악과가 오는 11일 성결인의 집 대강당에

서 '크리스티안 바르텐 오르간 리사이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스위스 베른 대학의 교수이자 스위스 베른 대성당의 오르가니스트 겸 음악 예술 감독인 크리스티안 바르텐이 연주를 진행할 예정이

다. 이번 공연은 J.S. Bach의 'Passacaglia c-Moll BWV 582'부터 시작하여, R. Schumann의 '4 Skizzen für den Pedalfügel op. 58', C. Franck의 'Choral II', 그리고 M. Reger의 'Symphonische Phantasie und Fuge op. 57'까지 다채로

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크리스티안 바르텐 교수의 연주는 그의 전문성과 열정이 오르간 예술에 집중한 헌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며, 관객들에게 단순한 음악 감상을 넘어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지동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CTS 새벽예배 40 힐링스토리 50 신앙예배	40 힐링스토리 50 조건희 목사의 찬양과 나눔	00 생명의 삶 2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3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은혜의 시간 30 TV 설교/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00 말씀 관통 이음 목사의 성경 맥잡기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6:00 00 생명의 말씀-오영택 목사(하늘비전교회) 30 생명의 말씀-황덕형 목사(새중앙교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50 [말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00 TV 설교/(생명의 양식)삼승교회 김형석 목사 30 주만찬 50 잘 믿고 잘 사는 법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복음의 빛을 사랑의 빛으로
	7:00 00 CTS 뉴스 2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35 생명의 말씀-박석진 목사(포항장성교회) 50 생명의 말씀-이창교 목사(창원상남교회)	10 힐링스토리 20 비전설교 라이프처치 심상수 목사 50 비전설교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	30 레알캠핑 5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30 TV 설교/주님기쁨의교회 김대조 목사	3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 50 노변담화
	8:00 20 신앙예배 30 [워킹온다바이블] 성지탐방 50 CTS아침찬양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50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닌니까 - 백석대 장중현 총장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20 CBS성서학당·갈릴리 산책 44강 - 조성욱 목사 "예수님과 물고기"	00 성지가 좋다 30 비전메시지 - 은혜드림교회 최인선 목사
	9: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50 말씀노트	40 다류 더 로드	00 [말씀] 최성우 목사(지구촌교회)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구약의 세계로 (오십소)2	10 새롭게 하소서	0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으로
	10:00 00 사장님은 선교사 50 7000마리클 - 열방을 향하여	00 비전설교 선한목자교회 김다위 목사 30 여의도순복음교회 수요예배 생방송 이영훈 목사	20 은누리교회 수요여성메시지	00 오직 주님만 솔로 30 CBS 뉴스	00 성지가 좋다 C채널 창사 15주년 특집
11:00 50 [생방송] CTS 뉴스	30 말씀의 센터 화광교회 윤호근 목사	00 [말씀] 임재영 목사(서부성결교회) 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50 레알캠핑	00 율포원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50 비전메시지 - 대광교회 최대한 목사	
오후	12:00 30 생명의 말씀-유영완 목사(하늘중앙교회)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말씀의 센터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	1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2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00 TV 설교/두든교회 장형희 목사 30 TV 설교/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	20 비전메시지 -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 50 말씀의 창 - 마라나타교회 이영은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이승희 목사(대구반야월교회) 30 신앙예배 4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00 말씀의 센터 군포사랑의교회 성권용 목사 30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20 한소망교회 감사 부흥회	2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30 말씀의 창 - 구례제일교회 김명석 목사
	14:00 00 [생방송] 콜링갯 50 내가 매일 기쁘게	00 매일 주와 함께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레디온	00 TV 설교/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30 새롭게 하소서	00 백석의 센터
	15:00 40 7000마리클 - 열방을 향하여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라다곰	00 [말씀]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 40 생명의 삶	20 영혼의 양식/양천교회 김동인 목사 30 TV 설교/한성교회 도원욱 목사	0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6:00 30 생명의 말씀	00 말씀의 센터 성산교회 오원호 목사 30 말씀의 센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심계명 속 기독교 윤리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	00 CBS성서학당·요한계시록 9강 - 송태근 목사 "새벽별을 주리라" (본문 - 요한계시록 2:18-20) 50 CBS 교회소식	00 내 삶의 행복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7:00 00 사랑의 말씀-오정현 목사 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묵상 3분 미리클	00 말씀의 센터 순복음총교회 오영대 목사 30 말씀의 센터 순복음금정교회 김형근 목사	30 [말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00 믿음의 대화 36.5 40 크리스천칼럼 5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00 성지가 좋다 3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18:00 00 생명의 말씀-김복익 목사(그레이스힐링교회) 30 말씀노트 40 부흥어게인	00 행복플러스 30 여의도침례 수요 필 워십 50 더 메시지	10 한국교회 상담사역 콘퍼런스 50 [말씀] 권혁민 목사(씨드교회)	10 잘 믿고 잘 사는 법 30 TV 설교/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3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저녁	19:00 30 광림의 시간	00 조용기 목사, 영실교	30 이스라엘로 (오십소)	00 TV 설교/영광제일교회(이기용 목사) 30 TV 설교/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	00 말씀의 창 - 인천제일교회 도원석 목사 30 명성교회 수요기도회
	20:00 30 생명의 말씀-주진 목사(세한교회)	00 명사들의 명강 30 말씀의 센터 감사드림교회 차영아 목사	"00 에메이징 그레이스 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0 하나님을 기쁘게 7004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복음강단 - 서울은혜교회 김태규 목사
	21:00 00 CTS 뉴스 40 내가 매일 기쁘게	0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30 다류 더 로드 50 GOODTV 뉴스	00 창동영광교회 주일예배	00 CBS성서학당·갈릴리 산책 44강 - 조성욱 목사 "예수님과 물고기" 50 CBS 뉴스	1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
	22:00 30 다시보는 내가 매일 기쁘게	10 이단사이렌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잊위의 서재 시즌2 50 저스트 텐 미닛 (달빛마을)	10 새롭게 하소서	00 예루살렘 테이트라인 20 소문난 성경교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23:00 20 CTS두란노 성경교실 50 신앙예배	10 2023 다니엘기도회	00 JD. 그리어의 다윗의 삶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00 주만찬 20 잘 믿고 잘 사는 법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50 리바이츠워십
	24:00 00 콜링갯 50분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00 젊은이의 예배 만나교회 강병삼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 비전특강	00 CBS 아카데미 숲 50 살롱 찰롱	0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00 0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음성' 30 2023 다니엘기도회 이은상 목사	00 GOODTV 오늘의 예배 30 월드미션투데이	00 [말씀] 이용조 목사(갈보리교회) 40 [말씀] 김용훈 목사(열린문장로교회)	00 다니엘 기도회 40 CBS비전특강/CBS 비전특강	00 선교는 지금 2
	2:00 20 힐링스토리 30 CTS한반도의 찬양	00 명실교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30 이음 목사의 성경의 맥	20 [말씀] 김형석 목사(지구촌교회)	30 TV 설교/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00 THE 깊이 공금한 신앙, 몰랐던 이야기 성지편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3:00 00 7000마리클 열방을 향하여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	0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JD. Greear's The Life Of David 30 [말씀] 류용렬 목사(와싱톤중앙교회)	00 율포원	00 만나 워십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김선도 감독 20 오늘의 양식 30 TV새벽예배 만나교회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예능교회 조건희 목사 50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	00 CBS성서학당·열방기서 16강 - 김기석 목사 "야비야, 야사, 나답의 통치" (본문 - 왕상 15:1-32) 50 CBS 교회소식	0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2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5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출발 出发 出発
Departures

설렘을 찾아서, 인천공항 Check-in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 순간들
우리의 일상이 이토록 특별했음을 알게 한 시간들
모두의 소중한 조금은 특별했던 일상으로

다시 시작, 인천국제공항

